



明慧週刊



李洪志 甲申年十二月二十七日



第1312期(2026.10.16) WWW.MINGHUI.ORG

한글판 1076호 minghui.or.kr



▲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파룬궁수련자들은 10월 11일, 연례 이탈리아 전통의 날 퍼레이드(Italian Heritage Parade)에 참가했고 길가 관객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주요내용

- 【수련】오만과 강경함을 닦아내고 법 속에서 제고하다
- 【수련】수련의 길로 들어서다
- 【수련】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은 있다
- 【수련】명예에 대한 집착을 깨닫고 닦아내다

〈목 차〉

■ 해외종합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3

■ 중국소식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10

■ 수련교류

오만과 강경함을 닦아내고 법 속에서 제고하다 13

수련의 길로 들어서다 22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은 있다 33

명예에 대한 집착을 깨닫고 닦아내다 41

사부님에 대한 신념 53

정진실수하며 수련 중의 매사를 정념으로 대하다 63

■ 문화예술

역사적 전란의 이면: 신앙의 빛 (상) 71

【편집자 주】 明慧周刊은 지면 제한으로 明慧網의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발췌문입니다. 본문은 글쓴이 개인의 현재 인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수련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比學比修’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수련생들의 정법 수련 행사 보도

2026년 10월 8일, 부패 및 인권 침해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초국가적 탄압을 타격하기 위한 C-219 법안이 캐나다 국회 하원에서 3독(Third Reading, 법안 심의 단계)을 통과했다. 즉 법안이 하원에서 최종 심의를 마치고 통과됐으며, 다음 단계로 상원 통과 후 어센트(Royal Assent, 국왕 재가)를 받으면 법률로 제정된다. C-219 법안(전체 명칭은 ‘세르게이 마그니츠키 국제 반부패 및 인권 법안’, Sergei Magnitsky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nd Human Rights Act)은 보수당 예비내각 국방 장관이자 국회의원이자 제임스 베잔(James Bezan)이 2025년 9월 발의한 개인 법안이다. 이 법안의 목적은 해외의 인권 침해자 및 부패한 관리에 대한 캐나다의 제재와 문책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데 있으며, 주요 내용에는 ‘초국가적 탄압’ 명확히 타격, 기존 제재 법률 개정 및 명칭 변경, 투명성 및 국회 감독 메커니즘 제고, 양심수와 인권 수호자 보호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2017년 ‘마그니츠키법’을 개정하는 것 외에도 ‘특별경제조치법’을 개정해 ‘양심수’ 및 ‘초국가적 탄압’의 정의를 캐나다 법률에 포함시키고, 정부가 동결된 자산을 몰수하는 기한을 설정했다. 이러한 자산은 향후 인권 침해와 위협, 부패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배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2017년 ‘마그니츠키법’의 주요 추진자로서, 베잔은 10월 9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 입법은 캐나다가 동맹국과 뜻을 같이하게 하고, 인권을 수호하고 부패를 타격한 세르게이 마그니츠키의 전통을 널리 알리며, 그의 이름을 딴 제재 메커니즘을 통해 가해자의 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10월 11일, 연례 이탈리아 전통의 날 퍼레이드(Italian Heritage Parade)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콜럼버스 애비뉴에서 열렸다. 파룬궁수련자로 구성된 천국악단이 퍼레이드에 참가했고 훌륭한 연주는 길가 관객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악단은 또 특별히 현장 관객들을 위해 이탈리아 명곡 ‘나의 태양(O Sole Mio)’을 선사했다. 퍼레이드 위원회 위원장 폴 토넬리(Paul Tonelli)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 악단은 너무 훌륭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매년 퍼레이드에 참가하러 와서 매우 기쁩니다.” 토넬리는 천국악단의 합류가 “이날을 샌프란시스코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날로 만들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덧붙였다. “그들은 항상 활력이 넘치며 퍼레이드에 아주 훌륭한 음악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참여를 매우 사랑합니다.”

10월 4일 아침, 샌프란시스코 베이에어리어 각지에서 온 파룬궁수련자들이 오르테가 공원에서 단체연공을 마친 후, 30년 전 리홍쑈(李洪志) 사부님께서 이곳에서 설법하셨던 정경을 회상했다. 1996년 10월 5일, 리홍쑈 사부님께서 미국에 오신 후 로스앤젤레스에서 샌프란시스코 베이에어리어로 향하셨다. 당시 원래는 베이에어리어에 가서 수련자들을 만나보실 계획이었으나, 나중에 모인 인원이 비교적 많아 임시로 오르테가 공원의 팔각정에서 수련자들을 위해 약 2시간 동안 설법과 질의응답을 하셨고, 이후 수련자들과 단체 사진을 찍으셨다. 당시 북캘리포니아 지역 책임자이자 전 칭화대학 강사였던 케빈 안(Kevin An)은 사부님이 오셨을 때 먼저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하셨고, 원래는 그저 베이에어리어를 지나가며 수련자들을 보러 오신다고 해서 모두에게 연공하러 오라고 통지했다고 회상하며 말했다. “당시 웬일인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다들 사부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는 아무도 앉아 있지 않고 모

두 일어났습니다.” 컴퓨터 엔지니어인 리즈웨이(李志偉)는 이렇게 회상했다. “당시 우리 모두는 정말 감격했습니다! 저는 1996년 1월부터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는데, 수련한 지 9개월 만에 사부님을 뵈게 되어 ‘와! 정말 감격스럽다!’라고 느꼈습니다.”

9월부터 10월 초까지,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파룬궁수련자들은 현지의 여러 지역사회 행사에 초청받아 정보 부스를 설치하고 공법 시연과 공법 교습을 하며 현지 시민들에게 파룬궁을 소개했다. 9월 24일, 파룬궁수련자들은 메사 대학이 개최한 건강박람회에 초청받아 참가했다. 행사 시작 몇 달 전부터 주최 측은 웹사이트를 통해 파룬궁수련자의 연락처를 찾아 초청장을 보냈다. 메사 대학 학생 건강 센터 서비스부 주임 수잔 캄바타는 “저는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가 이 세상에 가져다준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많은 사람이 아직 이를 진정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람들은 파룬따파를 이해하고 감사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9월 하순, 제81차 유엔 총회 기간에 뉴욕 지역 일부 파룬궁수련자들이 며칠 연속 유엔 본부 인근 다그 함마르셴드 플라자(Dag Hammarskjöld Plaza)에서 평화 청원 행사를 열고 중공이 27년간 지속해 온 파룬궁 박해를 종식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많은 행인이 걸음을 멈추고 지켜보며 알아보았고, 다른 시위 단체 중에서도 파룬궁수련자와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박해 진상을 알아보는 이들이 있었다. 로드리게스(Ana Rodriguez)는 일부 파룬궁수련자들이 과거 중국에서 박해를 겪고 이후 중국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로드리게스는 그들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녀가 말했다. “유엔 회원국들은 이러한 상황을 알아야 하며, 중국공산당 정권에 박해를 끝내도록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10월의 스웨덴 스톡홀름에는 가을비가 끊임없이 내렸다. 일 년에 한 번 있는 노벨상 발표 기간을 맞아 구시가지의 노벨 박물관은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다. 10월 10일(토요일), 파룬궁수련자들은 빗속을 무릅쓰고 박물관 앞에서 진상 알리기와 박해 반대 서명 행사를 개최했다. 아름다운 연공(煉功) 음악과 평화로운 공법 시연은 많은 관광객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그들은 파룬궁과 파룬궁이 중국에서 겪고 있는 박해 진상을 알아보았다. 영국에서 온 한 노부인은 중국공산당(중공)이 파룬궁수련자들에게 고문 박해를 가하고 생체 장기적출을 한다는 진상을 알고 나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 노인은 빗속에 오랫동안 서서 매우 집중해 진상 패널을 관람하고 파룬궁수련자가 진상을 알리는 것을 경청했다. “이것은 너무 사악합니다!” 그녀는 말했다. “저는 파룬궁과 중공의 파룬궁 박해에 대해 처음 들었습니다.”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중공의 파룬궁 박해에 반대하는 청원서에 서명하고 나서야 자리를 떠났다. 튀르키예에서 온 한 남성은 “‘진선인(眞·善·忍)’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자 마땅히 지켜야 할 가치라는 것에 동의하며, 여러분을 지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다큐멘터리 ‘국유장기’가 프랑스 서부 라로셴(La Rochelle)의 C GR 르 드라공(Le Dragon) 영화관에서 상영됐다. 최근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 문제를 폭로한 이 다큐멘터리는 프랑스 서부와 남부의 여러 영화관을 비롯해 프랑스 해외주인 과들루프(Guadeloupe)에서도 상영됐다. 이번 상영에는 기독교인 고문 및 사형 철폐 행동(ACAT), 국제앰네스티 회원, 라로셴 대학 문학·언어·예술·인문과학부(FLLASH) 여학생, 의사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프랑스 기독교인 고문 및 사형 철폐 행동(ACAT) 회장 장 알레(Jean Allais)는

다큐멘터리 ‘국유장기(State Organs)’를 관람한 후 주최 측에 특별히 편지를 보내 자신의 소감을 전했다.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목격한 것 외에도 저는 파룬따파의 정신적 함의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파룬따파의 정신적 함의를 알게 됐고, 이러한 정신이 수많은 중국인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기쁩니다”라고 덧붙였다.

9월 24일과 10월 8일, 프랑스 파리 파룬궁수련자들이 아름다운 성시에서 연공, 진상알리기와 서명행사를 개최했다. 회계직과 교사로 일했던 장 자크(Jean-Jacques)는 파룬궁과 중공의 박해, 장기적출에 대해 처음 듣고 매우 충격받고 분노했다. “이것은 그야말로 경악스럽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완전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이 사람들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모두가 모르고 있으니, 반드시 사람들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게 해야 합니다!”

9월 26일과 10월 3일, 연속 두 번의 토요일 오후, 파리 파룬궁수련자들은 파리 중심부의 샤토레 지역에서 연공과 진상 알리기 행사를 열었다. 사회복지사 파올라(Paola)는 진상을 알고 나서 말했다. “박해와 장기적출은 비인간적이고, 존재해서는 안 되는 일이며, 정말 충격적입니다!” 은행 임원인 라시르(Rasir)는 파룬궁수련자들의 가부좌 연공을 보며 매우 평온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중공이 파룬궁수련자를 박해한다는 상황을 알게 된 후, 그는 충격과 유감을 표했다. 그는 “중국은 대국으로서 문화와 종교의 다양성으로 유명한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진심으로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일본 히로시마현 히가시히로시마시에서는 10월 10일과 11일, 매년 열리는 ‘주(酒) 축제’가 개최됐다. 파룬궁 수련자들은 축제 무대에 올라 경쾌한 요고(腰鼓) 공연을 선보이고, 파룬궁의 다섯 가지 공법을 소개하고 시연하며 현지 주민들과 즐거운 축제의 시간을 함께했다. 축제 사회자는 관중들에게 “다음 공연은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파룬궁입니다”라고 소개했다. 인근에 거주하는 마키 씨는 매주 일요일이면 이곳에서 연공하는 파룬궁 수련자들을 볼 수 있다며 음악이 매우 듣기 좋다고 말했다. 수련자들은 그에게 파룬궁을 소개하고, 중국 본토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여전히 박해를 받고 있으며 심지어 장기를 강제로 적출당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전했다. 처음에 마키 씨는 그 말을 믿기 어려웠다. 이에 수련자들은 국제 사회에서 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관련 법안들이 통과된 상황을 설명했다. 이야기를 들은 마키 씨는 “공산당이 정말 잔인하네요. 중국은 유구한 역사를 지닌 나라인데, 갑자기 공산당이 들어서더니 이렇게 비도덕적인 짓까지 저지르네요. 이런 사실을 알려줘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호주 시드니의 밍후이(明慧) 학교는 9월 27일 캔터베리 남자고등학교(Canterbury Boys High School)에서 파룬따파 어린이 대법제자 수련심득 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 17명의 어린이 수련생이 무대에 올라 발언했다. 어린이 대법제자들은 가정과 학교, 일상생활에서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법공부와 연공을 꾸준히 하는 방법, 진선인의 기준에 따라 자신을 요구하고, 갈등이나 억울한 일을 겪거나 유혹에 직면했을 때 안으로 자신을 찾아 집착심을 버리고 심성을 높이는 과정 등을 나눴다. 어떤 어린이는 자신과 갈등을 겪은 친구를 어떻게 선하게 대했는지 이야기했다. 또 어떤 어린이는 한때 비디오게임에 빠져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웠지만, 결국

중독에서 벗어난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이 밖에도 꾸준히 연공하고 다른 사람을 정직하게 대하는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공유한 어린이도 있었다.

중국 수련생이 최근에 당한 박해사례 선별 보도

충칭시 주룽포구의 84세 파룬궁수련자 장청량(蔣承亮)은 2026년 초 주룽포구 법원으로부터 부당하게 6개월형을 선고받고 자택에서 감외집행을 받았다. 이 억울한 판결이 끝나기도 전인 5월 12일, 장청량 노인은 주룽포구 법원에서 다시 부당한 재판을 받았고, 6월 4일 또다시 1년 3개월형을 억울하게 선고받았다. 현재 장청량은 여전히 감금돼 있다. 2024년, 그녀는 시민들에게 진상 자료를 배포하다가 진상을 모르는 사람에게 신고당했다. 그 후 약 1년여 동안 경찰이 빈번하게 집으로 찾아와 괴롭혔고, 그녀의 모든 대법서적등 개인 물품을 빼앗아 갔다. 현지公安, 검찰, 법원은 계속해서 사법절차를 이용해 장청량을 모함했다.

상하이시의 69세 파룬궁수련자 쉬니샤(徐妮霞)는 2025년 5월 13일 상하이시 바오산公安분국 국보(국내안전보위대: 파룬궁 탄압 담당公安기구) 대대 경찰에게 강제로 납치돼 바오산 구치소에 감금됐다. 2026년 10월 9일, 상하이시 징안구 법원은 그녀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고, 불법적인 판결을 내렸다. 부당하게 2년형을 선고하고 벌금 1만 5천 위안을 갈취했다. 장기간의 감금 박해로 쉬니샤는 늙어 보이고 행동이 느려졌지만, 그녀는 법정에서 여전히 평화롭고 태연하게 파룬궁은 사교가 아니며, 신앙은 무죄이고, 파룬궁수련자는 박해받고 있으며, 천안문 분신자살은 사기극이고, 양고(兩高,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의 사법해석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등의 관점을 설명했으며, 판사가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기를 희망했다.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광정현 가오령진 파룬궁수련자 우시(吳桴)

는 2025년 12월 4일 팡정현 공안국 가오령 분국 국보경찰에게 납치돼 하얼빈으로 보내져 부당하게 감금됐고, 이후 보리현으로 이송됐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우시는 이미 보리현 법원으로부터 부당하게 2년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하얼빈시 쑹빈 감옥에 감금돼 있다. 이는 그녀가 중국공산당으로부터 부당하게 선고받은 세 번째 징역형이다.

2026년 5월 20일, 헤이룽장성 지셴현의 80세 파룬궁수련자 쉬하이펑(徐海鋒)에 대한 불법 재판이 지셴현 구치소 심문실의 아주 작은 방에서 열렸다. 불법적으로 1년 4개월형을 선고받고 3000위안의 벌금을 갈취당하고 9월 17일 샹야산 감옥으로 보내졌다. 그가 촌 관리로 일하며 받던 쥐꼬리만 한 월급과 기초생활보장금도 모두 취소됐다. 그의 아내 역시 80이 다 된 나이인데 하루 종일 눈물로 지내며, 생계를 위해 밖으로 나가 비닐하우스에서 부추를 베는 일을 하고 있다. 새벽 1시에 나가서 일하며 한 시간에 12위안을 받는다.

네이멍구 츠핑시 파룬궁수련자 쩡위팡(鄭玉芳)은 진상 자료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2026년 4월 17일에 납치 및 감금됐고, 8월 13일 쑹산구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다. 검찰원 공소인은 첸홍광(陳宏光)이었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그녀는 1년 10개월의 징역형을 불법적으로 선고받고 5천 위안의 벌금을 갈취당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쩡위팡은 4월 15일 츠핑시 신청구 양광 아파트 단지에서 진상 자료를 배포하던 중 단지 경비원에게 스쿠터 번호판이 사진 찍혀 공안에 악의적인 신고를 당했다.

랴오닝성 차오양시 파룬궁수련자 류원화(劉文華)가 샹타 법원에 의해 ‘법률 실시 파괴죄’로 1년 6개월형을 부당하게 선고받았으며,

10월 19일 선양 다베이 감옥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2026년 3월 19일 아침 7시경, 류원화는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중 차오양시 쌍타 공안분국 정보(정치안전보위국, 파룬궁 탄압 담당 공안기구) 대대 량웨이명(梁威猛), 쑹완밍(宋萬明) 등에게 납치돼 불법 가택 수색을 당했다. 이후 그녀는 차오양시 구치소에 감금됐다. 7월 27일, 쌍타 법원은 류원화에 대해 불법 재판을 열었는데, 쌍타 검찰원의 공소인은 저우리팡(周麗芳)이었고, 재판장은 경홍옌(耿紅岩)(여)이었다.

오만과 강경함을 닦아내고 법 속에서 제고하다

글/ 프랑스 서양인 대법제자

[명혜망]

존경하는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자아 닦아내기

올해 저는 수련하면서 제 성격을 제대로 닦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작년 여름 선원 공연 주말 회의가 끝나자마자 시간이 되는 수련생 몇 명이 모여 매일 새벽 5시에 법공부를 시작해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데, 투어 기간에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법공부는 제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새벽에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아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고, 낮에 시간이 나면 책을 좀 더 볼 수도 있었습니다. 올해 투어 기간 동안 법공부는 제게 큰 도움을 줬고, 더욱 기꺼이 안으로 찾게 했으며, 외부 일과 거리를 두어 휩쓸리지 않도록 해줬습니다. 저는 자신에게 어떤 집착이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며 최대한 맑은 머리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법공부의 양과 질이 향상된 것은 제게 아주 크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작년과 비교해 제 자신이 어떻게 제고됐는지 분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타고난 성격이 직설적이고 욱하는 데다 고집이 셉습니다. 어떨 때는 이런 성격이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중에는 제거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았습니다. 자아의 영향을 받아서 때로는 제가 충분히 겸손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때도

있었으며(예를 들어 화를 내거나 두려워함), 때로는 자신을 실증하기 좋아하고 오만해져서 확고해야 할 때 오히려 강경하게 돌변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특히 선원 투어에 참여하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는 중요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을 중생구도 항목에 썼는지 여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능력은 자아의 영향 아래 오히려 파괴적인 역할을 하기 쉽습니다. 이런 점들을 깨달은 후, 저는 항상 자신을 일깨우며 최대한 평온을 유지하고 사람을 선하게 대하려 노력했습니다.

물론 신께서 이런 고비를 준비하실 때 얼마나 세밀하고 정확한지 속인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저 자신은 그 길을 오며 비틀거렸는데, 어떤 때는 순조롭게 고비를 넘겼지만 어떤 때는 고비에 짓눌려 숨조차 쉬기 어려웠으며 이런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적지 않은 수련인과 성인들의 수련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읽어보기도 했는데, 그들은 어떤 일을 마주하든 자신을 지켜냈고 마음이 아주 고요하고 순수했으며 오직 진심으로 타인을 위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저도 항상 그럴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이것은 제가 막 수련을 시작했을 때 프랑스어 ‘전법륜(轉法輪)’에서 한신(韓信)이 그 사람의 가랑이 밑으로 기어나간 대목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번에는 제발 기어나가지 마라...’ 하고 중얼거렸던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한신은 여전히 기어나갔고 매번 그랬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과거를 돌이켜보니, 이 길은 제게 시작부터 만만치 않았습다.

흥미로운 점은 대놓고 적대적인 사람을 만날 때 오히려 제가 차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방송국 기자가 불만으로 가득 차 사사건건 트집 잡는 질문을 쏟아냈을 때, 저는 제 생각

을 조금 정리한 후 아주 평온하게 그녀를 대할 수 있었는데, 제 마음은 자비로웠습니다. 또 한번은 제가 미성년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만났을 때, 그들은 미성년자 문제로 저를 심문하며 항상 제 말을 왜곡했고 무려 2시간 30분 동안 끈질기게 몰아붙였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머리가 심하게 아팠지만, 당시 제 마음은 아주 고요하고 사고가 명확했으며 화를 내거나 당황하지 않았고 원망심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다른 상황이었다면 저는 순간적으로 화에 휩쓸렸을지도 모릅니다.

한번은 제가 모 극장의 매표 담당자와 통화했습니다. 그에 앞서 그녀는 제게 아주 공격적인 어투로 메일을 보내 계약대로 초대권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요구했는데, 이 일은 제가 이미 작년 11월에 처리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와 통화한 적도 메일을 주고받은 적도 없었는데, 그녀가 기세등등하게 당장 표를 보내라며 너무 어처구니없다고까지 하는 것에 당황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의연함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이런 고난은 종종 단독으로 오지 않고 항상 온갖 고통이 한꺼번에 쏟아져 사람을 단번에 긴장하게 합니다), 심지어 저는 속으로 기뻐하며 ‘만약 예전 같았으면 내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작은 기쁨이 순식간에 저를 후회하게 만들 줄은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아마 오해일 테고, 그녀의 말투가 거칠고 무례하긴 하지만 제가 전화를 걸어 분명하게 설명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가 연결되자 메일보다 상황이 더 나빴습니다. 제 화가 순간 치밀어 올랐고, 결국 저는 아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화가 나고 짜증스러워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한 제 자신을 탓했습니다. 다음 날, 불학회 책임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 극장 담당자와 통화했는데 당신이 자기 전화를 끊

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녀에게 설마 그러지 않았을 테고, 아마 통신 상태가 좋지 않아 끊어졌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정말 그녀의 전화를 끊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아마 저를 대신해 약간 난처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2. 자신의 완고한 관념 돌파와 고통 겪을 준비

온갖 감정을 조금씩 닦아내기란 매우 쉽지 않습니다. 제 안의 분노는 마치 오래전부터 안배된 방어 도구 같아서, 제가 고통받지 않고, 스스로 고통받는 모습을 보지 않으며, 남에게 수모를 겪지 않도록 보호해 제 체면을 지켜줬습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혹된 세상에서 두려움은 방탄조끼처럼 저를 대신해 더 큰 고통을 막아주지만, 결국 두려움 자체도 어떤 형태의 고통입니다. 그것들이 보호하고 봉사하는 대상은 그저 형태만 바꾸는 자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情)이란 사실 바르지 못한 관념들로서 자아를 점점 더 크게 키운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런 감정(두려움, 분노, 호불호)으로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하지 않기로 한다면 그는 자유로워지고 금강불괴(金剛不壞)가 되는데, 그가 신과 연결된 크나큰 자유로움을 다시 찾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실에서 일깨워진 마음 깊은 곳의 상처와 제 인생 경험과 관련된 고통을 용감하게 느끼고 마주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감정이란 사실 자아를 대변하며, 자아가 떠나지 않고 버티게 하는 구실입니다. 간단히 말해, 자아란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 자아와 관련된 고난은 도처에 널려 있으며, 속인들의 일과 매우 비슷합니다. 진정한 관건은 이런 일에 부딪혔을 때 우리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한번은 어떤 여성의 표에 문제가 생겨 다른 사람의 표와 중복됐는데, 우리는 10여 일 전에 그녀에게 미리 알렸습니다. 매표팀에서 그녀와 통화하고 메일을 주고받았던 직원들은 하나같이 제게 그녀의 태도가 아주 험악했고, 협박을 하며 현장에 오면 당장 따져 묻겠다는 등의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변경, 상의, 해명 등 어떤 말도 듣지 않았고, 와서 한바탕 싸우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창구에서 그녀를 만나야 할 날이 다가오자, 이 일만 떠올려도 저는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이 일을 슬쩍 꺼내자 남편이 같이 가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가기 전에 저는 마음속 분노와 경계심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저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구길까 봐 두려웠고, 제가 감당하지 못할까 봐 두려웠던 것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를 만났을 때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비록 작은 일이었지만 저는 제가 이 고비를 넘겼다고 느꼈습니다. 단지 일이 순조로워서가 아니라, 이번에는 제가 더 이상 자아와 관련된 요소들(예를 들어 자아 실증, 화내기, 두려움, 경계심)에 의지해 자신을 보호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경험은 제가 제5장 공법 연공을 하는 것과 관련된 일입니다. 저는 항상 가부좌를 좋아했고, 가부좌를 틀고 앉으면 마치 집에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10분은 보통 견디기 아주 힘들고 몹시 아파서, 대부분 저는 이를 악물고 억지로 버텼습니다. 한번은 다리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오기 시작하자 저는 예전처럼 마음을 졸이며 억지로 버틸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만약 빛이 있다면 인정하고 갇아야 하며, 저는 이 고통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 온몸의 긴장이 탁 풀리는 순간, 사람 모양을 한 그림자 하나가 옆으로 휩 지나

가며 저를 한 대 때리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빛을 기꺼이 갚을 것이며, 이것도 사부님께서 내게 안배해주신 것으로 수련의 길에서 마땅히 갚아야 할 빛이다.’ 순식간에 사람 그림자가 점점 많아지더니 저를 호되게 때렸습니다. 제가 곁에서 자신을 보니 주변에 그림자가 너무 많아 제 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그 그림자들이 갑자기 흩어졌고, 제 몸은 폭 꺼져 녹아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마 업력으로 이루어진 신체였을 것이고, 이 층차에 이르러 마침내 빛을 다 갚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연거푸 몇 달 동안 저는 가부좌를 할 때 전혀 아프지 않았고, 단지 두 다리가 짝 조여져 밧줄로 묶인 것 같은 느낌만 들었습니다. 저는 아프든 안 아프든 집착하지 않았고, 이것은 그저 수련 과정의 한 단계일 뿐 고기를 먹고 안 먹고와 비슷해 그럴 때가 되면 자연스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기에 저는 순리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 일은 제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저는 고통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고통과 직면하는 법을 배웠으며, 고통의 진정한 의미도 깨달았습니다.

사부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고생을 겪고 난을 당하는 것은 업력을 제거하고 죄를 없애 버리며 인체를 정화(淨化)하고 사상경지를 제고하며 층차를 승화시키는 아주 좋은 기회로서, 이는 대단히 좋은 일이며 이것이 바른 법리(正法理)이다. 그러나 실제 수련 중에서 고통이 왔을 때, 모순이 심금을 충격할 때, 특히 일단 사람의 그 완고한 관념을 충격할 때면 여전히 관을 넘기가 아주 어려우며, 심지어 고험(考驗)임을 뻔히 알면서도 집착을 내려놓지 못한다.”(정진요지3-최후일수록 더욱 정진해야 한다)

3. ‘일하는 것’과 ‘마음 닦기’ 구분

저는 제 성격이 확실히 좀 좋아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진심으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며, 남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마음 닦기’를 배운 뒤 ‘일하는 것’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극장에서 우리는 때로 태도가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이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비용을 청구하기도 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런 방식은 공정하지도 않고 규정에 맞지도 않으며 계약과도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며, 메일을 쓸 때 좀 더 정중하고 온화하게 썼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가식적이고 부자연스럽다고 느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저는 진심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선량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고 싶었으며, 이것이 제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계속 실천해나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소통할 때 서로의 관계가 훨씬 원만해지고 정중해졌음을 발견했는데, 제가 예전에 까다롭다고 여겼던 사람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올해 우리는 후방지원, 행정, 재무 분야에서 적지 않은 새로운 요구 사항을 추가했고, 투어 과정에서 제가 각 조 코디네이터에게 부탁해 처리한 업무도 예년보다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 카드, 교통 및 숙박비 정산, 행정 회의, 일정 짜기, 교류, 각 조의 후속 조치, 물자 및 후방지원 등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오로지 항목에만 매달려, 모든 것을 질서정연하고 순조롭게 돌아가게 할 생각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저는 몇몇 수련생에게서 그들 내면의 빛을 보았고, 자주 감동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큰일은 아니었지만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각 협조인에게 자신의 항목팀을 대신해 표를 하나 작성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양식에는 교통과 숙박에 대한 수식이 모두 설정돼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방법은 아주 간단해서 무엇을 확인하든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이 양식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쓰기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또 일부 협조인에게는 행정 업무가 그들의 강점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각자 그 많은 서류와 영수증을 힘들게 처리해 결국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서를 정리해 제게 건네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그 이면에 그들이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공을 들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여성 협조인은 서류 안에 펜으로 우는 표정을 그려 넣어 자신이 겪은 많은 어려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또 어떤 수련생은 일을 아주 진지하고 성실하게 하며 책임감도 투철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자기 업무량이 많다고 말하는 것을 자주 들었는데, 이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원격으로 근무해 우리와 함께 투어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에야 저는 매번 공연 전마다 그녀가 향을 한 개비 피워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가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단순하고 소리 없는 행동은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저는 이 행동에서 그녀의 진심과 순수함, 그리고 그 무언의 동반을 느꼈습니다. 이런 세심함이 제 마음을 움직인 이유는, 제가 단지 그녀의 업무 자체만이 아니라 그녀 마음속의 진정성과 다정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4. 항목 성공과 심성 제고

개인 수련과 중생구도는 서로 연결돼 있지만, 저는 여전히 항상 자신을 일깨웁니다. 심성의 제고와 항목의 성공은 별개의 일이라는 점을 말합니다. 그 둘은 서로 대응하지만 같은 것은 아닙니다. 관건은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한 근본인지를 우리가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차이는 매우 미묘합니다. 저는 하나의 항목이나 행사의 효과가 아무리 좋고 아무리 훌륭하게 치러졌더라도, 그것이 곧 심성이 제고됐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 두 가지는 분리돼 있습니다. 어떤 행사를 잘 해냈다고 해서 제 심성이 제고된 것도 아니고, 잘 해내지 못했다고 해서 심성이 제고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일하는 것’과 ‘마음 닦기’의 차이를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선원의 성공은 사부님과 신의 안배이며, 또한 선원의 성사와 공연을 위해 모든 참여자가 용기를 내고 자신을 헌신해 얻어낸 결과입니다.

맺음말

저는 진정한 대법제자의 기준에 도달하려면 제가 아직 한참 멀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자신이 대법제자가 돼 이번 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을 찾았다는 사실에 대해 제 마음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함과 기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노력하며, 자아에 집착하는 것들을 계속 닦아낼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이런 것들은 그저 제 생명의 환상일 뿐이며, 저는 계속 노력해 저 자신의 자유와 주체성을 되찾고 대법 속에 완전히 헌신할 것입니다.

사존께 감사드립니다. 수련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유럽 법회 원고)

수련의 길로 들어서다

글/ 슬로바키아 대법제자

[명혜망]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고 하며, 슬로바키아에서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수련 심득을 교류하려 합니다.

저는 젊은 대법제자입니다. 어머니, 외할머니, 이모가 모두 수련인이었기에 어릴 때부터 대법의 환경 속에서 생활했습니다. 어릴 때는 수련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고 정진하지도 않았지만, 저는 언제나 파룬따파가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과 소년 시절을 비교적 순탄하게 보냈고 병고를 겪어본 적도 없으며 집 안에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기에, 결과적으로 저는 매우 나태해졌고 안일심도 아주 무거웠습니다. 비록 가족들이 대법의 법리에 따라 저를 가르쳤지만 저는 점차 속인 사회의 유혹에 끌렸고 안일한 생활에 갈수록 빠져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른이 되어 생활 속에서 고난을 만나게 되면 파룬따파를 수련할 거야.’ 저는 줄곧 이것이 유일하게 바른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부님께서는 한 번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부님께서는 무한한 인내와 자비로 제가 깨닫기를 계속 기다려주셨습니다. 대략 14살 무렵,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한 악인이 저를 해치려고 쫓아왔고 저는 계속 도망쳤지만 이미 더 이상 물러

설 곳이 없었습니다. 제 유일한 선택은 바다로 뛰어드는 것뿐이었는데, 그렇게 하면 살아남지 못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제가 두려움과 절망에 굴복하려던 바로 그때, 곁에 갑자기 오픈카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은 중국인 남자였고 옆에는 두 명의 중국인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흰색 긴 치마를 입은 여자가 차에서 내려 제 앞으로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절벽 끝으로 데려가 저와 함께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몹시 두려웠지만 잠시 후 우리는 날아올랐습니다.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니 빛을 발하는 거대한 두 날개가 우리를 받쳐 공중을 날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데리고 바다를 날아 건너, 한 도시에서 가장 가까운 해안에 저를 무사히 내려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깨어났습니다. 이 꿈은 제게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꿈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이 꿈은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지금 저는 이것이 사부님의 일깨움이었고, 사부님께서 줄곧 저를 보살피 주고 계셨음을 압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두려운 마음이 올라오거나 어려움에 부딪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다고 느낄 때마다 이 꿈을 떠올리기만 하면 희망이 보입니다.

정과 가족에 대한 집착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줄곧 계부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가 술을 마셨기에 집에서는 자주 다툼과 오해가 생겼습니다. 집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는 전날 밤에 술에 취하곤 했습니다. 어떨 때는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고 모든 일을 어머니에게 떠맡겼습니다. 어머니가 비록 수련인이어서 대법의 법리에 따라 대하려 노력했지만 그래도 자주 마음 아파하셨고, 저는 그

모든 것을 어머니와 함께 겪었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의지했고, 집안의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모녀가 함께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저의 보호자로 여겼고 어머니를 떠나서는 아무 데도 갈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누군가 어머니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저는 원망을 마음속에 눌러두었고, 나중에 사춘기가 되자 그 원망은 불경함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계부를 존경할 수 있는 어른으로 대할 수 없었고, 그가 남편 노릇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아버지 노릇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2년 전 제가 비교적 정진하며 수련하기 시작한 이후, 이 원망심이 갈수록 많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를 미워할수록 집안 일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저는 제가 그를 원망했던 까닭이 어머니에 대한 정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이 배후에는 여전히 저의 사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위해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저를 대신해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대신 해주고 챙겨주어, 제가 평온하고 편안하게 날들을 보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사부님께서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바로 사람에게는 정(情)이 있으며, 사람은 바로 이 정을 위해서 산다. 육친정 · 남녀지정 · 부모지정 · 감정 · 우정, 매사에 정분(情份)을 말하며, 곳곳마다 이 정을 떠날 수 없다. 하려고 하거나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기뻐하거나 기뻐하지 않거나, 사랑과 미움, 전반 인류 사회의 모든 것이 전부 이 정(情)에서 나온 것이다. 만약 이 정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당신은 수련하지 못한다. 사람이 이 정에서 뛰쳐나왔다면 누구도 당신을 움직이지 못하며, 속인의 마음은 당신을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것을 대체하는 것은 慈悲(츠뻬이)이며, 더욱 고상한 것이다.”(전법륜)

저는 이 정이 줄곧 저의 수련을 가로막고 있었음을 깨달았는데, 제가 혼자 고생하지 않기 위해 자주 어머니에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을 내려놓기 위해 노력하고 가족에 대한 정을 담담하게 하며 저 자신이 좀 더 독립적이 되게 하려 했습니다. 진정으로 저를 보호해 주시는 분은 오직 사부님뿐이며 제가 감사해야 할 분도 오직 사부님뿐이니, 제 인생과 수련의 길을 안내해주신 분이 바로 사부님이십니다. 제가 진정으로 사부님을 믿기만 한다면 저 자신에 대해서도 믿음이 생길 것이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난관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입니다.

저는 점차 이러한 건강하지 못한 감정적 의존이 저를 독립하지 못하게 하고 두려운 마음을 없애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계부에 대한 저의 시각마저 왜곡되게 만들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수련인으로서 저는 계부를 고통받는 하나의 생명으로 보아야 하며, 그의 인연의 역할은 바로 우리에게 시련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전생에 우리가 그에게 똑같은 고통을 받게 했기에 오늘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일 수 있고, 바로 우리가 업을 갚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또 왜 그를 원망해야 하겠습니까? 만약 제가 고생이 두려워 도피하려 한다면 저의 수련 목적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계부가 우리를 어려운 처지로 몰아넣을 때는 확실히 자주 견디기 힘들었지만, 저는 더 이상 이런 것들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업을 갚는 일부분으로 여기고 아울러 다방면에서 최대한 그에게 자비롭고 그를 선하게 대하려 합니다. 이렇게 해

야만 그가 대법의 힘을 볼 수 있고, 그가 자신을 바로잡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제가 계부에 대한 태도와 시각을 바꾼 이후, 집안 상황이 호전됐습니다. 그는 제 수련을 지지하고 제가 천국악단에 참가하는 것도 지지하며, 심지어 우리와 함께 ‘전법륜’을 법공부하고 연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현재 술을 마시지 않고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국악단에 가입하다

저는 2024년 5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진정으로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자신의 안일심과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꺼리는 마음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2025년 11월, 한 수련생이 제게 천국악단에서 새 단원을 모집 중인데 특별히 젊은이를 환영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사부님께서 제게 주신 일깨움으로 여기고 이 항목에 가입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고 피아노도 쳤기에, 속으로 ‘한번 시도해 봐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에는 이런 일을 잘해낼 수 있을지 모른다는 의구심도 많았습니다. 이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하고 결심이 필요하며, 자주 먼 길을 이동해야 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안일한 상태에서 철저히 벗어나 독립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11월 말에 저는 신청서를 제출했고 입단 심사를 준비할 때 저는 악단에서 제게 플루트나 클라리넷을 배정해주기를 바랐는데, 이 두 악기가 휴대하기 편하고 소리도 좋으며 모양도 예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사를 마친 후 악단 측은 제게 몇 가지 특정한 악기만 부족하며 플루트와 클라리넷은 그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려주었고, 이에 저는 제 마음에 가장 든다고 생각되는 색소폰을 선택했습니다.

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 악단에 필요한 것은 트럼펫, 호른, 또는 유포니움이라고 또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가장 실용적인 것을 고르고 싶어 트럼펫을 선택했는데, 이 몇 가지 중에서 그것이 가장 작고 휴대하기 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트럼펫 역시 성사되지 않았는데, 트럼펫을 불려면 아주 많은 힘이 들고 주선율을 모두 트럼펫 연주자가 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자신이 그것을 불어낼 수 없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호른을 선택했는데, 아무래도 유포니움은 더 크고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그전까지 저는 호른이라는 악기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처음 그것을 보았을 때 제 마음은 매우 내키지 않았는데, 그것이 조금도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호른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고, 자료에서 그것이 가장 불기 어려운 관악기 중 하나이며 몇 년을 배워야 비로소 소리를 낼 수 있다고 적혀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마음속에 단번에 초조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울고 싶어졌는데, 모든 것이 제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제가 실패할 운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아직 악기를 만져보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 기간에 천국악단의 다른 연주자들의 교류가 제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길이 사부님께서 잘 안배해 놓으신 것이며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바로 사부님께서 저를 위해 선택해주신 악기임을 받아들여야 했고, 이 항목 안에서 저는 모든 사람 마음과 기대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트리 아래에서 마침내 그것을 뜯어 손에 들었을 때, 제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자신과 이 악기 배후의 생명 사이에 무척 강한 연결이 있으며, 그 생명이 제 수련을 도울 뿐만 아니라 저의 중생구도도 도울 것임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으로 호른을 불어보려 했을 때 또 하나의 반전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음을 하나도 불어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어려웠고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기간에 저는 줄곧 선생님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고, 설령 찾았다 해도 상대방은 저를 가르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자신이 여전히 속인의 시각에서 이 일을 보고 있으며 여전히 모든 것을 제 기대대로 흘러가게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사람 마음을 내려놓은 후, 저는 스스로 독학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이에 저는 매일 최소 2시간씩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힘들었지만, 2주 후 저는 첫 번째 옥타브를 불 수 있게 되었고 3주 후에는 첫 번째 곡 ‘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두 달은 줄곧 독학했는데, 비록 어려움이 첩첩산중이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최대한 빨리 악단에 합류하기 위해 몇 곡을 더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일종의 내적 동력이 있었고 책임감도 있었으며 호른 파트의 빈자리를 채우고 싶었는데, 이 악기를 부는 연주자가 정말 너무 적었기 때문입니다.

안일심이 무거워 예전에 저는 자주 느슨하게 연공했는데, 이 점은 호른을 불 때 곧바로 반영되어 나타났습니다. 세 가지 일을 잘 하고 연공도 했을 때는 아주 순조롭게 불어졌고, 반대로 제가 나태해져 연공을 빼먹었을 때는 불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악기에 대고 화를 내며 외적인 환경을 탓하기도 했지만, 나중이야 악기가 그저 저의 수련 상태를 비춰주고 있을 뿐임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천국악단에 가입하겠다고 결심했기에 저는 연공에서도 정진하게 되었습니다.

2개월 후, 저는 마침내 선생님 한 분을 찾았고 그녀는 저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녀와 첫 수업을 마친 후 제 음정은 조금 더 정확해졌고, 1개월 후 저는 이미 5곡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전이 비교적 빠르다고는 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4월의 한 수업에서 선생님은 제게 언제 천국악단에 합류할 계획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순회공연이 여름에 바로 시작되지만 제 음이 아직 몹시 불안정하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에, 아무리 일러도 내년까지 기다려야 합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연습을 시작해 봐요. 여름 전에는 반드시 늦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반응은 저를 매우 놀라게 했는데, 속인들은 보통 제게 몇 년은 연습해야 비로소 악단에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속인으로서 제가 이제 막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여전히 저를 지지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사부님께서 제게 조금 서두르라고 격려 해주시는 것으로 여겼고, 제가 기꺼이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고 마음속에 결심만 있다면 일은 이뤄질 수 있으며 모든 것이 늦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후에 과연 그와 같았습니다. 사부님께서서는 또 저를 위해 학교 근처에 연습할 장소를 잘 안배해주셨습니다. 그곳에 저는 매일 가서 볼 수 있었기에, 수업이 끝난 틈을 타 저는 그곳에 가서 연습하곤 했습니다. 5월이 되어 5개월간 분 후에 저는 심사의 첫 번째 부분에 참여하기 위해 녹음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게 실로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저는 ‘반드시 완벽하게 불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녹음을 아예 보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에게 비판받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저는 제 첫 졸업식 공연에 맞추려면 반드시 6월 초 전까지 완

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분 심사를 마친 후 아직 두 번째 부분이 남아 있었는데, 악보를 외워 7곡을 붙어야 했습니다. 이 역시 쉽지 않았는데, 당시 제가 마침 대학 시험 기간에 있었고 앞으로는 어려운 시험 몇 과목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호른을 첫 번째 자리에 두었고, 이에 저는 공부를 복습하는 한편 곡을 외웠습니다.

퍼레이드 1주일 전, 저는 마지막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6개월 후 저는 천국악단의 정식 단원이 되었습니다. 이 길을 걸어오면서 사부님께서 제게 이토록 인내해주셨음에 제 마음속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부님의 가지(加持)와 격려가 없었다면 저는 아예 해내지 못했을 것이며, 제게 있어 이는 곧 하나의 기적입니다.

저는 줄곧 아주 무거운 열등감이 있었고 항상 저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저는 자신이 어디에도 융화되어 들어갈 수 없다고 느꼈는데, 속인 사회뿐만 아니라 수련생들 속에서도 이러했습니다. 저는 자신이 합격된 수련인이 아니라고 자주 느꼈고 제가 한 푼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감히 새로운 사람을 접촉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들에게 나누어 줄 만한 재미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겼고 교류 또한 의미가 없어 보였으며, 어떻게 말을 해야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사는 도시에는 많은 수련생이 있고 모두들 상서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서로 도와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저는 늘 자신이 이 무리 밖을 배회하며 융화되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느낌은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있었으며, 어떤 무리에 있든 모두 똑같았습니다. 이에 앞서 저는 이 때문에 1년 반 동안 엽매여 괴로워하다가 마침내 제가 천국악단에 가입하기로 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구세력이 제게 주입한 것이며, 이로 인해 저를 수련 중에서 정체되어 나아가지

못하게 했고 도무지 위로 올라갈 수 없게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왕왕 제가 남들과 비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향적이고 말을 잘하는 사람에 대해 저는 마음속에 아주 강한 질투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질투심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련의 목적은 반본귀진(返本歸眞, 선천적인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며, 저는 이런 것들이 모두 진정한 제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열등감과 부끄러움을 포함한 일체 집착을 반드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바로 이 경험이 제게 모든 수련인에게는 각자의 독특한 가치와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의 가치는 바로 천국악단이라는 이 항목 안에 있습니다. 만약 애초에 제가 새로운 환경과 실패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저는 오늘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며, 저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사명을 깨달을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한 대법 항목 속의 아주 작은 일부분이며, 그 모든 일부분은 각 사람이 표현해 내는 모습이 어떠한 상관없이 모두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부님을 믿는 것이며 중생구도라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 퍼레이드

제게 있어 첫 번째 퍼레이드는 한 차례의 풍부한 체험이었습니다. 저는 타인과 교류하기 두려워하는 마음, 새로운 무리에 융화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체면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등 내면의 수많은 두려운 마음과 아울러 완벽을 추구하는 마음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천국악단 수련생들의 태도는 몹시 뜻밖이었는데, 퍼레이드 전 과정에서 그들은 줄곧 저를 격려해주었고 저는 우리가 마치 큰 대가족 같다고 느꼈습니다. 누군가 제게 문제를 지적

해줄 때 저는 이것을 비판으로 여기지 않았고, 도리어 이러한 제고의 기회가 있음에 무척 감사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눈여겨보고 제가 자신 없어 하는 것을 보고 와서 저를 격려해주는 것은 제게 있어 무척 드문 일이었으며, 속인 중에서는 제가 거의 마주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단체의 에너지장 안에는 자아도 없고 사심도 없으며 오직 순수한 자비, 협조, 확고함만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비록 마음속에 걱정이 많고 자신이 잘 붙지 못해 남들에게 들킬까 두려웠지만, 초보자이든 숙련자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같은 목적을 위해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게다가 연주를 할 때 저는 아주 강한 장 하나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잘 붙고 싶을수록, 틀리게 붙까 두려워할수록 음은 더욱 부정확해졌습니다. 반면 긴장을 풀고 모든 사람 마음을 내려놓아 저 자신을 우리의 사명 속에 녹아들게 하자 악기가 마치 혼자서 소리를 내는 것처럼 느껴졌고, 모든 것이 갑자기 훨씬 홀가분해지고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수련인으로서 저는 마땅히 순리에 따르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는 연주할 때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수련 중에서도 응당 이러해야 합니다. 천국악단에서의 제 전반적인 경험이 말해주는 것이 바로 순리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잡념을 반드시 제거해야 했으며, 그 잡념들은 저의 집착을 폭로해냈고 또한 제가 내려놓지 못하는, 바로 자신의 운명을 주재하려는 그 마음을 폭로해냈습니다.

이것은 무척 아름다운 경험으로, 제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두려운 마음을 드러내어 마주하도록 도와주었고 저의 마음가짐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제가 걸어야 할 길은 아직 길고, 제가 아직 진정으로 넘지 못한 많은 시련과 고비가 남아있지만 어쨌든 저는 오늘까지 걸어왔습니다. 제게 있어 이것은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는 증명입니다. 설령 가장 나태하고 편안함을 가장 탐하는 사람일 지라도 진심으로 사부님을 도와 정법하고 중생을 구하려 한다면, 역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고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모든 것은 자비로우신 사부님의 덕분이며, 사부님께서时时각각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계십니다. 사부님의 보호가 없었다면 저는 아예 지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경험이 또한 제게 대법의 위력을 시종일관 기억하게 해 주기를 바라며, 저 역시 정진해내기 위해 노력하고 안일심과 두려운 마음을 제거할 것입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줄곧 저를 지지해주고 제게 힘을 준 수련생들과 천국악단 연주자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층차에 한계가 있으니 교류 중 법에 있지 않은 곳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로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유럽 법회 원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은 있다

글/ 캐나다 대법제자

[명혜망]

존경하는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교류할 제목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은 있다’입니다. 이를 글로 써서 여러분과 교류하려 하니 적절하지 못한 부분은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1. 곤경에 빠지다

최근 몇 년간 소셜미디어 홍보 항목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올해 중순까지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항목은 다시 한번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 아래에 이 반년 남짓한 수련 과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작년 12월 말부터 각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비교적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먼저 소셜미디어 B에서 홍보 게시물에 대해 대량으로 트래픽을 제한했습니다. 이후 소셜미디어 A에서 알고리즘이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측면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모두 한 가지 결과로 이어졌는데 바로 소셜미디어에서 간징월드(乾淨世界)를 홍보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원래의 방식이 모두 통하지 않게 됐고 연이어 트래픽이 크게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전체 항목이 또다시 어려운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기간 많은 수련생이 당혹스럽고 막막한 상태에 처해 아무리 해도 트래픽이 오르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일부는 소극적으로 관망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항목을 떠난 수련생도 있었습니다. 심적인 압박도 매우 컸습니다. 트래픽이 계속 떨어지는 것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계속 이렇다면 내가 어떻게 본부의 지원과 수련생들의 노력에 얼굴을 들 수 있겠는가? 만약 내가 자원을 차지하고도 진상을 알리고 중생을 구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이는 수련인의 바른길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 일념은 반드시 안으로 찾아 마음가짐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런 심적인 압박 속에서 신체에도 한때 올바르지 않은 상태가 나타났고 한동안은 저녁 정기 회의조차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자주 불안감에 시달렸고 수련생과 소통할 때도 때로는 심성을 지키지 못했으며 회의

할 때 가끔 질책하는 어조를 쓰거나 심지어 엄하게 비판하는 등 수련인의 평정 상태를 잃었습니다.

2. 노수련생과의 한 차례 교류

항목이 침체기에 빠진 데다 기술 책임자이니 이는 분명 수련 상태와 관련이 있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한번은 법공부 팀의 한 노수련생과 교류하면서 진솔하게 문제를 지적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노수련생은 무척 완곡하게 말했는데 대략적인 뜻은 정념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항목이 ‘트래픽 제한’이란 관념에 심각하게 얽매어 있는데도 우리는 오히려 그 관념을 인정할 뿐 정념으로 이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정념으로 부정하지 않나요?! 발정념으로 이런 교란을 제거해야 합니다!”

노수련생의 이 지적은 저를 깊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지난 몇 달을 돌아보면 각 팀의 정기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소셜미디어가 변하고 있고 게시물 등록을 제한해 우리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수련생들의 말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생각도 거기에 휩쓸려 ‘그래, 소셜미디어에 변화가 있는 것은 당연해. 우리가 속인 미디어에서 진상을 알리려면 그 방식도 이런 변화에 부합해야 해. 제한을 받는 것도 어쩌면 일시적인 상황일 테니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겠지’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어땠을까요? 전환점이 오기는커녕 트래픽은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수련에 정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요?

3. 고통스러운 몸부림 끝에 출구를 찾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당신들에게 가장 바른 한 갈래 길을 남겨준 것과 같은데, 하지만 아주 좁다. 마음을 잘못 쓰고 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으면 아주 어려워질 것이다. 길이 아주 좁아서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할 수 있다.”(각지 설법9-NTD TV 토론회 설법)

저는 우리에게 걸보기에는 안 될 것 같지만 해낼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길은 기다린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며 전환점도 저절로 생기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2월 초부터 출구 찾기를 결심하고 트래픽 감소가 꽤 심각했던 소셜미디어 A부터 시작했습니다. 몇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숏폼 영상을 주요 게시물 콘텐츠로 삼았습니다. 그런 다음 소셜미디어 A의 트래픽 제한 메커니즘을 촉발하지 않기 위해 모든 홍보용 웹 주소 사용에 일련의 조정을 가했습니다. 아울러 프로그램을 이용해 숏폼 영상 편집, 게시물 등록, 댓글 작성, 효율 분석 등을 자동화하는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이렇게 3주 정도 지나자 소셜미디어 A 계정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팔로워 수와 게시물 조회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 A 팀에게 진행 상황을 설명했을 때 반응은 다소 냉담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방법을 시도해 본 사람도 이렇게 하면 우리 시스템에서 집계되는 클릭 수가 심각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또다시 원래의 방식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주가 더 지나 3월 중순 무렵이 되자 기본적으로 완성된 작업 방식을 내놓았고 동시에 사용하기 쉽고 간단한 영상 편집 도구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계정이 평균 2주마다 1000명의 팔로워를

늘릴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제야 소셜미디어 A 팀의 일부 수련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얼마 후 일부 계정에서도 제 계정과 비슷한 효과를 냈습니다. 그러자 모두 자신감을 얻었고 더 많은 수련생이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개의 계정만 성과를 내 트래픽 제한을 돌파하는 것만으로는 안 됐습니다. 가져오는 트래픽이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었고 매일 목표로 하는 트래픽을 달성하기엔 여전히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돌파 전략을 세우고 개별 수련생을 대상으로 일대일 지도를 진행했습니다. 수련생 한 명씩 돌파할 수 있게 관념을 바꾸도록 설득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줬으며 올바른 방식의 효과를 한 명씩 확인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 명씩 트래픽이 늘기 시작하면서 전체 트래픽이 조금씩 회복됐는데 이 과정은 정말이지 무척 힘들었습니다. 노년 수련생들이 우리 항목의 주축인데 7, 80대의 많은 수련생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속도가 꽤 느렸기 때문입니다. 반복해서 설명해도 설명하면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면 또 설명해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했습니다.

소셜미디어 A 측면에서는 마침내 꽤 큰 진전이 있었지만 소셜미디어 B는 여전히 많은 메인 페이지가 트래픽 제한을 받는 상태였습니다. 다들 메인 페이지의 트래픽이 제한되거나 심지어 정지당할까 두려워 감히 게시물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전체 소셜미디어 B 팀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트래픽이 매우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기다리기만 해서는 변화가 없을 것 같아 소셜미디어 B의 해결 방안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5월부터 저만의 소셜미디어

B 메인 페이지를 개설하고 소셜미디어 A에 게시물을 올리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게시물을 올리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게시 과정을 간소화하는 도구도 함께 개발했습니다. 소셜미디어 A의 게시물을 몇 번 클릭만 하면 소셜미디어 B의 메인 페이지에 등록될 수 있도록 지원해 1인분의 업무량으로 2인분의 효과를 낼 수 있게 했습니다. 실제 조작 과정에서 소셜미디어 B가 생각만큼 제한이 많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히려 B는 홍보하기에 아주 적합했으며 특히 초기에 시작하기가 꽤 수월했습니다. 막 시작한 이 메인 페이지는 2~3주 만에 기존 일부 메인 페이지의 트래픽에 도달하거나 심지어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소셜미디어 B 팀도 따라서 하기 시작했고 그 효과는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 전체 트래픽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항목 수련생들은 몇 달간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각종 장애를 극복하고 관념을 바꿔 마침내 출구를 찾았습니다. 현재 항목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은 역대 최고 수준에 달했습니다.

항목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도대체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 자신을 반성해 보면 최근 1~2년간 주로 플랫폼 구축과 도구 개발에 바빠 직접 구체적인 게시물을 올리는 일을 소홀히 했고 그 결과 실제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도록 손을 놓은 채 문제가 생기면 각자 알아서 해결 방법을 찾게 했습니다. 하지만 항목의 기술 책임자로서 이러한 점은 사실상 무책임한 것이었습니다.

전체 과정을 되돌아보면 사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소셜미디어가 우리 홍보용 계정, 커뮤니티, 메인 페이지를 제한하고 심지어 계정이나 메인 페이지를 정지시킨 것이었습니다. 이는 전체 팀에 매

우 심각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안겨주었고 이로 인해 정념 부족, 소극적인 태도, 심지어 두려운 마음까지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수련인에게 모두 집착이며 그중에서도 두려운 마음이 특히 심각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을 구하는 일이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 가서 보면 왜 이런 일을 겪을 때 정념이 부족해지고 심지어 두려운 마음마저도 생겼을까요? 저는 여전히 자아에 집착하는 요소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라고 느낍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계정이나 메인 페이지가 정지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지난 수년간 이 계정과 메인 페이지에 쏟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까 봐 두려워했으며,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문제가 생겨 남들에게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념은 본래 빨리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조차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큼니다.

또한 속인 중에서 진상을 알리고 중생을 구할 때 때로는 어떤 틀이 형성되기도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인 방법, 경험, 도구, 경로 등 이미 효과가 입증된 것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일이 언제나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에 이미 형성된 이러한 것들도 어느 순간 유행에 뒤처지거나 효력을 잃을 가능성이 큼니다. 이때 이전 방식을 고집하며 감히 돌파하려 하지 않거나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안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하나의 족쇄가 돼 사람을 구하는 일을 가로막고 심지어 정체되게 만들 것입니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이 어려움을 크게 볼수록, 일은 더욱 어려워지는 것으로, 상유심생(相由心生)이라, 그 일은 더욱 번거롭게 될 것이다. 상유심생은 또 이런 한 층의 뜻이 있는데, 당신이 그것을 높게 놓고, 자신을 작게 놓았기 때문이다. 그 일을 별

것 아닌 것으로 보고, 사람을 구도하는 이처럼 큰일을, 당신들이 해야 할 바를 해야 한다. 마음속으로 좀 착실히 하고, 무슨 그다지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것과 그다지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마주치거나 듣게 되더라도 마음에 두지 말며, 정정당당하게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도록 하라. 사악의 교란을 받지 말고 그것에 이끌리지 말라. 그런 좋지 못한 요소가 자신에게서 생기지 않으면 사악은 보잘것없어지고, 당신들 자신은 높고 크며, 정념이 족해질 것이다. 정말로 모두 이러하다.”(각지 설법10-에포크타임스회의 설법)

사실 사부님께서 일찍이 우리에게 ‘상유심생(相由心生)’ 법리를 말씀하시며 어려움이나 번거로움에 부딪혔을 때 수련인으로서 마땅히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단지 실천하는 과정에서 늘 사부님의 간곡한 가르침을 떠올리지 못했기에 그동안 걸어온 길이 늘 순탄치 못했던 것입니다.

맺음말

수련 과정에서 때때로 사막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도처에 어려움뿐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때가 수련이 제고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일지도 모르며 바로 수련인에게 정념이 있는지,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전진할 수 있는지, 흔들림 없이 굳건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사부님의 제자이며 사부님께서 줄곧 우리 각 사람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출구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관건은 100% 굳게 믿을 수 있는지,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성을 다해 그 길을 찾을 수 있는지, 낡은 고정관념을 감히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부님께서 ‘전법륜(轉法輪)’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겁난

(劫難) 중에서 또는 관(關)을 넘는 중에서 당신은 시험해 보라. 참기 어려운 것을 당신은 참아 보고, 보기에 안 되고 행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그러면 당신이 한번 시험해 보라. 도대체 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만약 당신이 정말로 해낼 수 있다면, 당신은 정말로 고난 속에 광명이 있음(柳暗花明又一村)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관건은 문제 자체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커 보이는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련인이 반드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정념과 그 출구를 찾겠다는 결심이 있어 ‘행하기 어려운 것을 능히 행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의 수련과 사람을 구하는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상은 최근 1년간 수련 과정에서 얻은 작은 체험입니다. 적절하지 못한 부분은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6년 캐나다 법회 원고)

명예에 대한 집착을 깨닫고 닦아내다

글/ 캐나다 서양인 대법제자

[명혜망]

존경하는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년 동안, 저는 근본적인 집착을 되돌아보게 하는 4가지 큰 시험을 겪었습니다. 이 4가지 일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명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아무리 상황이 순조롭지 않더라도 두려움 없이 법을 실증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그중 한 가지 시험과 저의 인식,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긴 변화에 대해 교류하려 합니다.

1. 내려놓기

작년 겨울, 친구의 친구가 저를 찾아와 자신의 웹 드라마 감독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비록 무보수 항목이었지만 저는 감독이라는 직업을 매우 좋아했고 경험을 쌓고 포트폴리오를 만들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약서와 대본을 본 후 이야기가 감동적이고 인간미가 있다고 느껴 주저 없이 항목에 참여했습니다. 팀원들도 모두 좋았고 일도 매우 전문적이었습니다. 이런 대형 항목의 감독 겸 제작 주임을 맡게 돼 매우 기뻐했습니다.

두 달간의 사전 제작과 6일간의 고강도 촬영을 마친 후, 저는 이 드라마가 사실상 명확하게 ‘의료 조력 사망’을 선전하고 있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자살 방조였습니다. 저는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의 작가 겸 제작자, 그리고 여 주인공이자 공동 제작자인 그의 아내를 찾아가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영상이 해당 주제에 대해 긍정적인 도덕적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나아가 그에 관련된 일부 의료적 가치관을 반성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대본을 잘못 읽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본질은 어두웠습니다.

작가와 아내는 소통할 의향이 있었기에, 저는 몇 번이나 법의 관

점에서 선의로 그들과 교류하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의 관점이 매우 고집스럽고 모두 무신론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어떤 계약에서도 중도에 하차한 적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다른 사람과의 신의를 지키는 것도 매우 중시했기에 처음에는 감히 항목에서 빠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부님께서는 제게 세 가지 일을 보게 하셨습니다.

첫째, 제가 이 의사 겸 작가에게서 어떤 것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고 결정했을 때, 반인반기계(半人半機械) 생명체가 제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즉시 그것이 이 의사에게서 온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것을 제 몸에서 제거하도록 도와주신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둘째, 환자가 안락사를 요구하는 장면을 촬영할 때, 전문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주 잘 찍혔고, 심지어 주인공 언니 역을 맡은 배우는 촬영 도중 갑자기 두드러기가 날 만큼 장면의 몰입도와 충격이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은 갑자기 너무 고통스러워 거의 토할 것 같았고, 잠시 자리를 떠나 멀리 떨어진 복도로 가서 진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저는 이 일을 한 수련생에게 말했습니다. 수련생은 참을성 있게 다 듣고 나서 제게 말했습니다. “내가 뭘 느꼈는지 알아요? 당신은 사실 그 드라마 제작에서 떠나고 싶어 해요.” 이 말을 듣자마자 저는 왈칵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느꼈고 이미 그토록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을 생각하면 자존심도 상했으며, 게다가 하차하면 직업적으로 손실도 생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더는 남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시 저의 층차에서 볼 때 이

드라마 제작에 계속 참여하는 것은 법을 실증하는 것이 아니었고, 저의 가치관과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의 원칙에도 위배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하차했습니다. 저는 크레딧과 이미 완성한 작업, 즉 전체 드라마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분량을 포기했고 아주 훌륭한 감독 포트폴리오 소재가 될 뻔한 것도 포기했습니다. 진정으로 내려놓기란 쉽지 않았고, 심지어 몇 주 후에는 작가와 그의 아내에게 진상을 더 잘 알릴 수 있지 않았을까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냉정을 되찾았고, 일부러 모든 배우와 기술 스태프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왜 하차했는지 설명했으며, 그 과정에서 소중하고 의미 있는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비록 그 의사가 제가 그들에게 선물한 ‘전법륜(轉法輪)’을 돌려주는 것은 했지만, 그의 아내의 말에 따르면 그는 그래도 들춰보았다고 합니다. 저는 적어도 한 구절이라도 그의 마음에 남기를 바랐습니다. 또한 그가 제 페이스북을 본 것을 알기에 진상을 알리는 사진과 글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이후 뜻밖에도 후속 촬영을 맡은 감독이 신앙심이 깊고 직언을 서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사부님의 홍대한 안배를 생각하며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와 그녀는 약간의 친분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녀가 저와 솔직하게 교류하고 싶어 해서 우리는 대화를 아주 잘 나눴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이 드라마의 크레딧에 연출자로 이름을 올려도 된다고 했을 때, 그녀는 그것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해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몇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극중에서 표현된 관점이 기술팀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영상에 명시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저로 하여금 ‘진(眞)’의 함의

를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번 대화를 통해 저는 당시 제가 항목에서 하차하는 방식이 다소 너무 강경했고, 사임할 때 주요 고객에게도 충분히 예의 바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또한 어두운 일을 마주할 때 본능적으로 방어하고, 단절하고, 도피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에는 반드시 더 잘해야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 많이 생각한 다음 자신을 생각하고, 부드럽고 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겠다고 말합니다.

2. 인내하려 시도하다

지난 2년 동안 저는 저에 대한 많은 부정과 폄하를 겪었습니다. 음성 메시지, 대면 교류, 우호적이라 여겼던 관계, 부부 사이, 가족, 시대, 직장, 심지어 수련생 사이에서도 저는 매우 강렬한 부정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어쩌면 업을 갚는 중일 수도 있고, 어쩌면 과거 어느 생에서 제가 그들을 그렇게 대했을 수도 있으며, 아니면 사부님께서 이를 빌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드시려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안으로 찾았고 적지 않은 집착을 발견했습니다. 듣기 좋은 말을 좋아하고, 존중받기를 바라며, 편안하게 지내고 싶어 하고, 배우자에 대한 정, 딸을 어떻게 잘 교육할까 하는 마음 등등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사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른 사람에 대해 좋지 않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단지 입 밖으로 내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미세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저는 줄곧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측면에서 수련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충격을 받았을 때 마음이 전혀 동요하지 않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너무 거세고 강렬하다고 느꼈기에 머릿속으로 수없이 반복해서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참지 못하고 사부님께 불평하기도 했고, 왜 이런 시험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으며 저에게는 이미 감당할 한계를 넘어서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 또한 많은 검은 물질이 저를 짓누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강도로 2년을 겪고 나서, 거기에 앞서 말한 항목에서 하차한 일, 그리고 또 다른 직장에서 동시에 10명의 동료 앞에서 체면을 구긴 일까지 더해진 후, 사부님께서는 제게 더 깊은 증차를 보게 하셨습니다.

위의 드라마 계약을 종료한 지 이틀 후, 저는 동료들에게 사과편지를 썼고 이어 다음과 같은 설법을 읽었습니다. “현재 이 방면의 표현이 아주 두드러졌는데, 이 방면에 주의해야 한다. 한 수련하는 사람으로 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때려도 맞받아치지 않고 욕해도 대꾸하지 말아야 하며, 정말 손실을 보았을 때 수련인은 모두 그냥 웃고 말아야 한다. 이는 당신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상태이며 반드시 해야 할 부분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속인이 아니고, 당신은 속인에서 걸어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각지 설법10-맨해튼 설법)

같은 설법에서 사부님께서는 뒤이어 또 말씀하셨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집착이 있으므로 해서, 남이 뭐라고 하면 창피하다고 여기는데, 바로 이 방면에서 뭐라 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을 건드릴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항목 책임자이므로 남이 뭐라 해서 안 된다고 여긴다. 또 어느 방면에서 특징이 있는 어떤 사람은 남이 뭐라 하지 못하게 한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 좋지 않은 견해가 있어 남이 뭐라 하지 못하게 하는 등등 여러 방면이다. 남이 뭐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동한 집착에서 온 것이다.”(각지 설법10-맨해튼 설법)

‘체면을 중시하는 집착이 있으므로 해서’라는 구절을 읽었을 때에야 비로소 저는 지난 2년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이 결국 명예에 대한 저의 집착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저는 ‘무게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에 집착했고 남들에게 눈에 띄고, 중시받고, 존중받기를 바랐으며 심지어 타인의 시선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으려 했습니다. 이런 집착들이 단번에 매우 또렷해졌습니다. 이는 제게 겸손을 배우게 했고 대법제자로서 진정한 자존심이 무엇인지 다시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어지는 며칠 동안 저는 또 깨달았습니다. 악의적으로 저를 겨냥한 듯한 말들은 내용과 표현 방식이 어떠하든 사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저의 인식으로 볼 때 그것들은 현실에서 업보를 갚는 한 가지 표현 형식일 뿐이었습니다. 이 점을 명백히 깨달은 후, 비슷한 일이 다시 나타났을 때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것들을 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맞받아치지 않다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때려도 맞받아치지 않고 욕해도 대꾸하지 않는다”(전법륜)에 대해 과거 제 이해에는 편차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다른 사람이 저를 공격하는 것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거나 업을 갚게 하려는 것이므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직 참고 견뎌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의 수련과 거듭된 시련을 거치면서 저는 점차 ‘맞받아치지 않는다’는 것이 사후에 상대방과 선의로 소통하고 일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마치 제가 예전에 ‘전법륜’에 나오는 뒷부분 구절을 진정으로 읽지 못했던 것과 같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선의(善意)로 해석할

수 있으며, 사정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모두 관계가 없다. 그러나 당신이 너무 집착하면 역시 안 된다.”

사실상 많은 경우 저는 당당하게 문제에 직면하고 법을 실증한 것이 아니라 위축되거나 침체하거나 회피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저는 줄곧 빠져나오지 못했고 결국 마음속은 불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현재 제가 있는 층차에서의 이해로는 이런 갈등이 오히려 직면한 사람이 누구이든 법을 실증할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런 시험은 제가 법 속에서 제고하고 자신을 증명하고 명예를 얻으려는 사람의 정과 집착을 내려놓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또한 제가 한 걸음 더 분명히 보게 했습니다. 제가 갈수록 자비심을 내지 못했던 이유는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이타심이 이미 조건부로 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이 먼저 저를 존중하고 저를 위해 생각해 주어야 저도 그들을 똑같이 대하려 했던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저는 단지 참기만 하고 인내하기만 했을 뿐, 해결해야 할 갈등을 진정으로 해결하지 못해 결국 저 자신이 시한폭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일부 사람을 구할 기회를 놓쳤고 어떻게 진정으로 수련인이 되어야 하는지 잊어버렸으며, 상태는 갈수록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저는 사부님께서 고집스럽고 강압적이며 자아가 매우 강한 사람들을 만나게 안배하신 것 또한 그들을 통해 제가 닦아 없애야 할 같은 문제를 보게 하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삶에서 다시 ‘주인공’이 되어 법을 실증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자만하거나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타적인 수련인의 순수한 자비와 신성한 헌신으로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4. 침체된 상태에서 벗어나 진정한 수련인이 되다

그와 동시에 구세력 역시 창작과 타인을 돕는 것, 그리고 파룬파파를 널리 알리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려는 저의 집착을 이용해 제가 더욱 걸어 나오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 3가지 집착(명예, 자아, 일을 많이 하는 것)이 합쳐져 제게 아주 큰 환희심과 열정이 일게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는 이로 인해 일에 끌려다녔고 점차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배우, 감독, 작가 등 꿈에 그리던 각종 작업 기회가 거의 다 저를 찾아왔고 모두 거절하기 힘든 계약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모든 것을 승낙했고 결국 심각한 과부하에 걸렸습니다. 비록 매일 여전히 연공을 조금 하고 법공부를 약간 했지만 부지불식간에 제 수련은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일반인과의 갈등은 갈수록 심각해졌고 일부 충돌 이면에 있는 원인도 똑똑히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머릿속이 충분히 맑고 순수하지 못했고 시련을 감당할 충분한 공간과 용량도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점차 침체와 불만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구세력은 가족과 직장 동료에 대한 저의 정, 그리고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에 대한 질투심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침내 한 일자리가 제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저는 사부님께서 제게 생각을 다시 정리하고, 다시 자신을 정화하기 시작하며, 진정으로 높은 층차로 수련하려던 서약을 재검토하고, 다시 진정하고 당당한 수련인이 되도록 격려하고 계신다고 느꼈습니다.

5. 남다른 연극

저는 글을 쓴 지 이미 7년이 되었습니다. 그중 파룬파파와 관련된 연극 대본을 한 편 쓴 적이 있는데, 그것을 퀘벡의 극장에 올리려

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비록 대본은 많은 호평을 받았지만 줄곧 거절만 당했습니다. 한때 저는 현재 극장에 어둡고 무거운 연극이 너무 많아 이토록 많은 빛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대본을 읽은 심사위원들은 그로 인해 진상의 일부를 알게 됐을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한 가지 공모를 보고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쓴 여행과 수련에 관한 책에서 일부를 발췌해 1인극으로 각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착수했습니다. 한 수련생과 저는 이틀을 집중해 대본을 수정하고 윤색했습니다. 그 후 저는 이 새로운 작품을 극장에 올리려고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저는 집착이 많이 줄었고 더는 그렇게 결사적으로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본성과 인물의 삶, 심리를 다루는 이런 작품이 요즘 비교적 인기를 끌고 있어서, 이번에는 어쩌면 성공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군데 투고하고 거절을 받은 후 저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좋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투고하고 그다음부터는 이 일에 집착하지 말자.’ 뜻밖에도 제 작품 ‘침묵 속 경청(S’écouter sans parler)’이 입선됐고 퀘벡시의 한 예술제에서 공연하도록 배정받았습니다. 제가 애초에 신청한 것은 그저 여행 사진과 영상 프로젝션을 결들인 대본 낭독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최 측에서 허락한 이상 2주를 들여 연극 전체를 온전하게 완성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렇게 해야 작품의 메시지를 더 잘 전달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수련생의 도움과 사부님의 가지(加持) 아래(정말 매우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완성했습니다. 정식 공연 당일, 저는 온 마음을 다한 몰입과 안정된 상태, 그리고 정념으로 공연을 마쳤습니다. 비록 대본은 저 자신에 관한 이야기이고 저 혼자 연기하는 1인극이며 제 사진과 제 음악을 사용했지만, 저는 어

편 자아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단지 법을 실증하고 있는 한 수련인을 통해 전달되는 순수한 에너지를 느꼈을 뿐입니다.

공연은 관객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공연 후의 질의응답 시간에 모든 사람이 자리에 남아 있었고 우리는 매우 훌륭한 교류를 나눴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걸 보러 와야 해요!” 또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여행에 데려가 주시고 이 신비로운 순간들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피드백 앞에서 저는 그저 순수하게 미소 지으며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일을 겪은 후 저는 계속 글쓰기를 통해 법을 실증하고 파룬따파를 널리 알려야 함을 알았습니다. 저는 또한 이번에 극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제가 명성에 대한 집착을 어느 정도 내려놓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글로 법을 실증하려는 저의 소원은 순수해졌습니다.

몇 주 후 저는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연극이 예술제 대상을 받았고 퀘벡시의 한 극장에서 제공하는 1주일간의 예술 레지던시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이는 올가을 제가 전문적인 지원을 받아 감독, 대본, 기술적인 부분을 한층 더 보완하게 됨을 의미했습니다. 집중 창작이 끝나면 한두 차례의 공개 공연도 마련될 예정이었습니다. 한 제작자 친구도 이 항목을 기꺼이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파룬따파에 아주 호감을 갖고 있으며 저와 함께 연공을 몇 번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 자신이 캐나다의 모든 프랑스어 무대에서 이 작품을 통해 법을 실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집착하지 않습니다.

6. 환희심을 경계하다—내려놓을 때 기적이 나타난다

올 한 해는 결국 제게 아주 깊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제가 자아

를 내려놓고 환희심을 멀리할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위해 안배해주신 사부님의 길을 진정으로 가로막는 것은 왕왕 제 자신,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을 갈수록 더 발견했습니다. 가정에서든 부부 관계에서든 저는 모두 이 점을 보았습니다.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대개는 제가 자신의 명예와 존엄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고 제 사람 마음을 ‘죽이고’ 사부님의 안배에 순응해 순수한 수련 속에서 제고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제가 부드럽고 진실하며 남을 위하고 평온할 수 있을 때면 기적이 나타나고 서로 간의 갈등도 아주 쉽게 풀렸습니다.

매 순간 당당하게 수련해내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느낍니다. 저는 여전히 다른 사람의 감정과 제 감정에 너무 쉽게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처음처럼 수련하는’ 상태를 더 많이 되찾았고 매일 세 가지 일을 잘하는 것의 힘을 다시 느낍니다. 연공은 저를 평온하게 하고 제 몸을 전화(轉化)시키고 있습니다. 법공부는 저를 사람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 제고하도록 돕습니다. 발정념은 저의 장을 정화하고 주변 사람들이 더욱 맑아지도록 돕습니다. 대법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더없이 소중한 기회입니다. 저는 자신의 서약을 실천하고 최근 저를 너무 심하게 교란하고 통제했던 그 사악한 요소들을 부정하고 싶습니다.

만약 법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자비롭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6년 캐나다 법회 원고)

사부님에 대한 신념

글/ 슬로바키아 서양인 대법제자

[명혜망]

존경하는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수련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2년에 법을 얻은 슬로바키아 대법제자입니다. 2023년 초, 저와 아내는 뉴욕 에포크타임스 본사에서 몇 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 기간에 에포크타임스 책임자는 제게 현재 직장을 그만두고 아내와 함께 슬로바키아 에포크타임스를 창립하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저는 신문 방송학을 전공했지만, 슬로바키아에서 새로운 언론사를 창립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파룬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한 이후로는 기본적으로 정치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뉴욕의 동료들은 진심으로 제게 축하를 보냈지만, 제 마음은 그들만큼 기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에포크타임스가 생기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우리 앞에 놓인 첩첩산중의 어려움도 보였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하필 나여야만 할까?’

어느 날, 저는 뉴욕의 숙소로 돌아왔을 때 대만 수련생 한 분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저와 아내가 귀국해 수도로 이사하여 슬로바키아 에포크타임스를 창립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좋은 소식이었지만, 우리는 경험이 없고 이렇게 큰 항목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마음속으로 다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대만 수련생은 어깨를 으쓱하며 간단한 영어로 제게 말했습니다. “그냥 믿으세요!(Just believe!)”

그는 단 몇 마디만 했지만, 그 순간 저는 그가 해야 할 말을 다 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런 처지에서 이 말은 너무나 정확하고 심오하게 들렸고, 저는 마치 사부님께서 그의 입을 빌려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바르지 않은 염두를 배척하다

슬로바키아 에포크타임스는 2023년에 창립돼 지금까지 이미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사부님께서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안배해 주시는지 줄곧 지켜보았고, 모든 일이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심성이 제고되고 업무적으로 성숙해짐에 따라 새로운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만약 이런 일들이 맨 처음에 주어졌다면 우리는 아마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2023년 가을, 슬로바키아는 중국의 귀쉬안가오커(國軒高科) 회사와 계약을 맺고 수라니에 대규모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수라니는 슬로바키아 남서부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귀쉬안가오커가 중국공산당(중공)과 밀접한 관계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미국은 이미 귀쉬안가오커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미국 내 영업을 금지했는데, 그 이유는 특히 신장 자치구에서 강제 노동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라니의 배터리 공장 항목은 슬로바키아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외국인 투자입니다. 슬로바키아 정부는 이 항목에 ‘전략적 투자’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이 지위 덕분에 귀쉬안가오커는 각종 행정 심사와 감독 절차를 훨씬 순조롭게 통과할 수 있었고, 슬로바키아 관

련 기관의 전폭적인 협조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장 건설 외에도, 중공은 수라니에 당조직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4년, 시공 전 각종 준비 작업이 잇따라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수라니 현지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민간단체를 구성해 배터리 공장 건설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 단체를 ‘시민단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들은 주로 배터리 공장이 이 지역에 환경 파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중국 회사가 이 산업의 극심한 오염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슬로바키아 당국에 제공한 통계 수치와 데이터가 위조됐다고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투자라는 주제를 대할 때, 슬로바키아 언론의 입장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야당 성향의 언론들은 친환경 저탄소 정책도 지지했기 때문에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환영하며, 공장 건설에 항의하는 민중을 ‘유언비어 유포자’라고 불렀습니다.

반면 친정부 언론들은 총리의 행보를 비판하려 하지 않았고, 공장 건설에 항의하는 민중은 이들 언론에서 거의 어떤 보도도 얻어 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며 이것이야말로 슬로바키아 에포크타임스가 채울 수 있는 공백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배터리 공장을 반대하는 이 시민단체와 연락해 몇 가지 질문을 던지기로 했습니다. 이전에 다른 언론들이 그들을 비방한 적이 있었기에 그들의 답변에는 다소 경계심이 배어 있었고 우호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의회에서 열릴 배터리 공장 관련 위원회 회의에 저를 초대했고, 우리는 그곳에서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혼자 의회에 가본 적도 없고, 정치인과 교류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배터리 공장이 초래할 환경적 위험과 중국 회사가 어떤 행정 절차를 회피했는지에 관한 자료를 몇 가지 주었습니다. 저는 이 자료들을 철저히 연구하고 싶었지만, 수중에 다른 일상 업무도 있어서 두 가지를 병행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의회로 가는 버스에 앉아 제 마음속에는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이번에 정말 값 가치가 있을까? 내가 과연 이 주제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때 저는 ‘전법륜(轉法輪)’에 나오는 한 단락의 법이 떠올랐습니다. “일정한 시기가 되면 당신에게 또 진짜도 아니고 가짜도 아니게 만들어 주어, 이 공이 존재하는지 하지 않는지, 수련할 수 있는지 없는지, 도대체 수련하여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부처가 있는지 없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당신으로 하여금 분간하지 못하게 한다. 장래 다시금 당신에게 이런 정황이 나타나게 할 것이며 당신에게 이런 착각을 조성해 주어, 당신으로 하여금 그가 마치 존재하지 않으며 모두 가짜처럼 느끼게 하는데, 바로 당신이 견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본다. 당신은, 당신이 꼭 견정불이(堅定不移)하다고 하는데, 이런 마음이라면 그때 가서 당신은 정말로 견정불이할 수 있으며, 당신은 자연히 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신의心性(심성)이 이미 제고되어 올라갔기 때문이다.”(전법륜)

머릿속에 온갖 바르지 않은 염두가 떠오르고 제 능력도 의심스러웠지만, 제 명백한 일면은 제가 반드시 가야 하며, 우리가 중국 투자라는 이 주제를 깊이 있게 보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가기조차 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우리가 슬로바키아 에포크타임스를 창립한 것은 또 무엇을 위해서인가?’

하지만 저는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회의는 단 15명의 일반인 방청만 허용했고 자리는 일찌감치 꽉 차 있었습니다. 저는 시민단체의 그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일이 왜 이렇게 됐는지 다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저는 여전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시민단체가 자신들의 요구를 표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오후에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는데, 바로 시민단체의 G씨였습니다. 우리는 한 시간 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진상을 알리고 에포크타임스의 역사와 사명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그도 제게 중국 공장 건설과 관련해 많은 상황을 소개해주었습니다. 이후 G씨는 에포크타임스의 영상 인터뷰에 응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또 한 번의 시련이자 더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이 길에 들어선 이상 끝까지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인터뷰를 위해 스튜디오를 꾸며야 했는데,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준비 과정과 인터뷰 자체만으로도 또 다른 수련 심득교류 문장을 쓸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2024년 말에 우리는 이 인터뷰를 진행했고 시청자 반응도 꽤 좋았으며, 우리는 시민단체의 G씨와 더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G씨는 항상 정기적으로 최신 진행 상황을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시민단체는 그들의 소셜 미디어에 우리의 기사를 공유하기 시작했는데, 이 기사들은 보통 우리 매체에서 조회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슬로바키아에서 우리는 균형 잡힌 보도를 하는 소수의

언론 중 하나로서, 공장 건설을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모두에게 목소리를 낼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졌습니다. 다른 몇몇 민간 단체들도 연명으로 공개서한을 작성해 배터리 공장 건설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 편지를 중국대사관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중국대사관은 편지 안에 폭탄이 들어있거나 탄저균이 묻어있을까 봐 걱정된다고 수취를 거부했습니다. 사람들은 서서히 중공의 방식을 직접 겪어보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여름, 우리는 전직 판사였던 시민단체의 또 다른 구성원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중국 회사가 어떻게 유럽의 표준과 법규를 교묘히 꺾었는지, 전체 공장의 안전 데이터가 어떻게 거둬 조작됐는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배터리 공장 건설에 찬성표를 던진 시의원들은 나중에 모두 신기하게도 새집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본래부터 친환경 정책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던 일부 야당 소수 정당들도 이때부터 이 의제를 넘겨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기사를 쓸수록 이 일에 관심을 두는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이후 수라니에서는 시위가 열렸는데, 장소는 바로 배터리 공장 계획 부지 앞이었습니다. 이 행사는 시민단체가 주최했고, G씨는 우리도 초대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또다시 다소 우려가 생겼는데, 참가자 중에는 온갖 사람들이 다 있었고 그중에는 배터리 공장 건설을 반대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에포크타임스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포함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콘텐츠가 널리 퍼질수록 에포크타임스와 대

법을 공격하는 부정적인 언론도 더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느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악이 이렇게까지 애를 쓰며 튀어나오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부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설법하셨습니다. “어떤 수련생들은 진상을 밝힐 때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며, 심지어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자주 만난다. 여러분은 한 사람의 반대 때문에 당신의 마음이 꺾여, 당신이 중생을 구도하는 용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대법제자라, 무엇이 대법제자인가? 가장 위대한 법이 육성한 생명이다. (열렬한 박수) 반석같이 견고하고, 금강불과(金剛不破)한 것이다. 속인 중의 나쁜 사람의 한마디 말이 다 무엇인가? 네가 아무리 사악해도 나를 변하게 할 수 없으며, 나는 반드시 나의 역사적 사명을 완수할 것이고, 나는 대법제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다.”(각지 설법 4-2003년 워싱턴DC 법회 설법)

우리가 시위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G씨가 즉시 다가와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 정치인이 막 연설을 마쳤기에, 저는 다가가 그에게 우리의 인터뷰에 응해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슬로바키아 정치인을 인터뷰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배터리 공장 사건을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에포크타임스를 안다고 말했습니다.

G씨는 전체 행사의 진행자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마이크에 대고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행사 현장에 온 에포크타임스를 환영합니다. 에포크타임스는 미국의 4대 언론사이며,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배터리 공장 건설을 보도하는 소수의 언론 중 하나입니다.”

현장에 있던 약 300명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박수를 보냈습니다.

당시 우리는 그 정치인을 인터뷰하고 있었는데, 저는 결혼질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사람들은 손에 손을 잡고 배터리 공장 계획 부지 주변을 둘러싸 인간 사슬을 만들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그들 곁을 지나가며 인간 사슬을 촬영했고, 누군가 우리를 향해 외쳤습니다. “에포크타임스 고마워요!”

행사가 끝난 후 두 명의 젊은이가 제게 말하기를, 그들은 우리가 G씨를 인터뷰한 첫 번째 영상을 보고 나서야 시민단체에 가입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영상은 그들에게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하게 해주었고, 그때부터 그들도 중국 배터리 공장 반대 활동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중국 공장 건설은 정체된 상태입니다. 올봄, 환경부 장관은 이 회사가 문서를 위조하고 유럽의 환경 보호 기준도 충족하지 못해 전체 공정이 최소 13개월이나 지연됐기 때문에 중국 배터리 공장이 슬로바키아에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러나 총리는 여전히 모든 것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배터리 공장은 반드시 세워질 것이고, 슬로바키아는 몇 개의 중국 항목을 더 도입할 계획이라고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중국 배터리 공장이 과연 슬로바키아에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 저는 이 일에 집착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높은 차원의 안배를 저는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곳에서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낼 기회와 플랫폼을 제공했고, 에포크타임스가 신뢰할 수 있는 매체임을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그들 역시 이번 기회를 빌려 중공의 그런 수법을 직접 겪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부님께서 안배하신 것이며, 우리는 단지 그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부분을 잘 해냈을 뿐입니다.

파룬따파와 종교

얼마 전, 우리는 사부님의 한 편의 경문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중 한 단락에서 속인이 파룬따파를 종교라고 말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읽었습니다. 이틀쯤 지나 저는 또 다른 법공부 팀과 함께 법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경문을 공부했고, 저는 다시 한번 종교와 파룬따파에 관한 그 단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신이 파룬따파를 종교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는 확실히 그렇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어떤 선택받은 무리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중요한 명절을 보내는 등 필요한 의식만 마치면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들은 별도로 자신을 제고하거나 품행을 닦을 필요가 없으며, 더 많이 베풀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종교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본분만 다하면 십중팔구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파룬따파의 수련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련은 수련인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의 수련과 심성의 제고를 중요하게 여기며, 책임은 수련인 자신에게 있습니다.

사부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설법하셨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는가, 수련은 자신에게 달렸고(修在自己), 공은 사부에게 달렸다(功在師父)고.”(전법륜)

저는 그제야 제 수련에 누락이 있음을 깨달았고, 이를 ‘이성적이지 못한 사부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는 잘하지 못할 때마다 자신을 합리화하며 어쨌든 사부님께서 저를 보살펴주실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심성 면에서 제고하고 싶지 않을 때면 저는 스스로에게 ‘괜찮아, 어차피 내가 파룬따파를 이렇게 여러 해 수련했고 각 진상 항목을 위해서도 그토록 많은 일을 했으니 사부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해주실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일종의 사상업(思想業)으로, 제 집착심을 위한 핑계거리를 찾아주며 제게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어차피 자신은 사부님께서 보살펴주시는, 선택받은 무리에 속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굳이 지금 제고해야 할 필요는 없고 다음에 제고해도 되며 별일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어차피 나의 미래는 반드시 아름다울 것이고, 이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성적으로 사부님을 믿는다면 제가 난(難) 속에서도 정념(正念)을 유지하며 포기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반면 이성적이지 못한 믿음은 저를 일종의 허구적인 안전감에 빠지게 했습니다. 어차피 사부님께서 제게 아름다운 미래가 있을 것이라 보장하셨으니 자신은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저 자신의 염두가 아님을 알며, 반드시 이런 염두를 제거해야 하고 그것들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언론 매체 일을 하다 보면 끊임없이 새로운 콘텐츠를 내놓아야 하므로 정신적으로 매우 지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돌파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신문 방송학을 마쳤을 때, 저는 제대로 된 언론사에서 일하고 싶지만 슬로바키아에는 그런 언론사

가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수련하지 않았습니니다.

오늘날 저는 다행히도 에포크타임스에서 일할 수 있게 됐고, 에포크타임스가 짚어준 사명은 제 그 시절의 꿈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사부님께서 제게 이 길을 안내해 주시고 줄곧 저를 보호해 주시며 제가 끊임없이 제고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련생들의 도움과 협조에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은 현 단계에서의 저의 제한적인 약간의 인식입니다. 법에 부합하지 않는 곳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바로잡아주시길 바랍니다.

(2026년 유럽 법회 원고)

정진실수하며 수련 중의 매사를 정념으로 대하다

글/ 해외 대법제자

[명혜망] 청년 대법제자로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법을 얻었지만, 착실하게 수련하지 못해 대법과 대법의 위대함에 대한 인식이 표면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2020년 9월 매체에 합류한 후, 업무 기술이 풍부해졌고 성격도 단련됐으며, 더 중요한 것은 수련의 길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집착을 발견하고 누락을 찾아내어, 부족한 부분을 닦아내기 위해 노력하며 정진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갈수록 대법의 위대함과 사부님의 자비, 그리고 대법제자로서의 행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5년간의 경험은 또한 매체에 처음 합

류했을 때 그저 대법에 대한 막연한 신념만 있었던 것에서, 점차 대법 항목의 의미를 이해하고 항목의 일원으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과 사명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에 매체 수련 과정에서 겪은 두 가지 경험과 제 수련상의 부족함을 공유하려 합니다.

1. 자아를 돌파하고 압박에 직면해 자신의 집착을 깊이 파헤치다

매체에 들어간 후, 저는 주로 특정 제품의 발송과 시스템 유지보수를 담당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비교적 복잡하고 사용 방식이 다양해 회사 업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발송량 측면에서도 수량과 질을 모두 요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스템은 유연성, 안정성, 지속성, 적시성 등의 특징을 갖춰 회사 업무의 수요와 발전을 충족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각 요구사항을 유지하려면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했고, 인력이 풍부한 속인 회사와 달리 우리는 불과 몇 명만이 전체 시스템을 유지보수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 관리자로서 저는 거의 매일 동료들의 요구사항을 접수하고, 소통하며 해결책을 찾아 설계하고, 방안의 실행과 개발을 조율하는 동시에 시스템 안정성을 모니터링하고 돌발 상황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매일 대기 상태에 있어야 했고, 많은 시간을 수련생들과 교류하는 데 사용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쏟아지는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계속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루 이틀은 ‘버텸’었지만, 1~2년이 지나면서 이 업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갈수록 많아지고 점점 더 커졌습니다.

처리해도 끝이 없는 요구사항에 직면해, 왜 ‘모든 일을 나 혼자 처리해야 하는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운영, 데이터 처리, 기능 개발, 시스템 유지보수를 나 혼자 다 해야 하는가?’ ‘왜 이렇게 내성적인 사람이 끊임없는 회의에 참석해야 하고, 다양한 국가,

다양한 팀 사람들과 상대해야 하는가?’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보며, ‘왜 다른 사람들은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는 것처럼 보이는가?’ ‘나는 왜 계속 대기 상태에 있어야 하는가?’ ‘왜 나는 대부분의 개인 시간과 생활을 잃어야 하는가?’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너무 많은 ‘나’와 ‘왜’는 이미 제 정념(正念)을 잃게 만들었고, 이때 저는 이미 법을 뒷전에 두고 제 사명을 잊고 있었습니다. 정념을 완전히 잃은 상황에서 선의는 온데간데없어졌고, 동료의 요청을 거부했으며, 제 입에서 나오는 반응은 선하지 않고 소극적인 것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보다 편해 보이는 수련생을 질투했고, 마음속으로 동료들의 여러 행동을 알아보기 시작했으며, 동료의 의견을 반박하고 제 의견을 뒷받침할 온갖 이유를 항상 찾아냈습니다.

대법제자로서, 그리고 매체 항목에서 맡은 책임상, 계속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 법공부를 그런대로 잘 따라가고 있었음에도 이런 부정적인 감정과 뻔히 보이는 집착이 가져오는 교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장기간 이런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은, 틀림없이 아직 찾지 못한 더 깊은 집착이 있다는 뜻이므로 깊이 파헤쳐 그것들을 닦아내야 했습니다.

왜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게 됐는지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수련인으로서 각자의 수련 길은 시련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지만, 왜 수련 동안 이 부분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을까요? 정말 일손이 부족해서일까요? 지난 몇 년간 간헐적으로 여러 사람이 와서 함께 시스템을 유지보수했는데, 왜 결국 흐지부지됐을까요? 설마 그들의 능력이 모두 부족해서였을까요? 자신을 깊이 파헤쳐본 결과 세 가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깊은 층차의 질투심과 과시심이 표면적으로 인내심과 선한 마음의 부재를 일으켰다는 점입니다. 시스템 유지보수를 돕도록 배치된 수련생들에게, 처음에는 여러 문제에 대한 처리 방식과 절차를 세심하고 인내심 있게 설명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일하거나 비슷한 질문을 반복해서 받을 때면 조금해지기 시작했고, 설명하는 말투도 선하지 않게 변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상대를 무시하기 시작하며, 왜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묻는지, 왜 메모하지 않는지, 왜 스스로 답을 찾으려 시도하거나 미리 공부한 뒤 질문하지 않는지 원망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요구를 상대방에게 강요했을 뿐,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수련인은 자신의 집착을 닦아내야 하지 않습니까? 왜 계속 상대방의 이른바 ‘잘못’과 ‘나쁜 습관’만 쳐다보며 놓지 못했을까요? 알고 보니 그것은 제 질투심이 작용한 탓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가 겪은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질투했고, 모든 문제를 직접 물어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질투했습니다. 한 걸음 더 깊이 파헤쳐보니, 놀랍게도 제 안에 은밀한 과시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속으로 득의양양해하며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봐, 나는 내가 생각하는 좋은 학습 습관과 스스로의 탐구로 온갖 문제를 해결했어’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한 후, 저는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려 애썼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바탕 위에서 문제 처리 방식과 그렇게 처리하는 이유를 설명했으며, 설명할 때 요점을 직접 기록해 상대방에게 주었습니다. 상대방이 다시 비슷한 문제를 물어볼 때도 인내심을 갖고 다시 설명해주었습니다.

사실 제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문제를 설명해줄 때면, 비슷한 질문을 반복해서 받는 상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전에는 대부분 제 인내심이 부족해 제 생각대로만 설명하다 보니, 처음부터 많은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둘째는 자신의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깊은 층차의 인식이 불분명해 표면적으로 이기심이 생겼고, 이로 인해 대담하게도 하늘의 공을 탐내어 혼자 공로를 차지하려는 망상을 품었으며, 자신의 성과를 항목의 안정적인 발전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점입니다. 수년간 온갖 다양한 요구사항 속에서 제 이른바 ‘고심한 운영’으로 간신히 시스템의 작동을 유지하고 사용자들의 요구를 그럭저럭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거둔 성과에 만족해하며 무의식중에 자신이 만들어낸 성과를 지키려 했고, 결국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기를 조금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각지 설법5-2004년 미국 서부법회 설법’ 중 기술 인원의 질투심 문제에 대해 사부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대법제자들이여, 우리가 속인의 기능을 좀 장악했다 하여 절대 교만하지 마라. 교만할 것이 별로 없다. 사실 당신이 배운 것은 역시 당신이 이런 소원이 있어서 애초에 당신에게 이렇게 배치한 것이다. 왜냐하면, 법을 실증하는 중에서 필요하기 때문인데, 이런 것에 불과하다.”

대법제자의 능력과 지혜는 모두 법에서 옵니다. 제가 얻은 작은 성과들은 그저 사부님께서 세심하게 안배하신 수련의 길에서 제 노력으로 인해 사부님께서 주신 격려일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에 대해 사부님의 안배에 감사드리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이를 제

것으로 삼으려는 망상을 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이룬 성과를 올바르게 대하지 못했고, 수련인의 요구에 따라 법을 가장 크게 여기지 못했으며, 제 능력하에 시스템을 더 잘 완성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시스템의 발전을 가로막았으니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 후로는 수련생이 필요로 하기만 하면 제가 만든 것을 아무런 숨김없이 내주고 자세히 설명해주었습니다.

셋째는 깊은 층차에서 사부님을 믿고 법을 믿는 것이 철저하지 못해 표면적인 제가 능력 면에서 제자리에 머물게 만들고 대법이 가져다준 지혜를 제때 활용하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동료 수련생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그들에게 더 많은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 발송 시스템 유지보수를 맡게 되었을 때 저는 입사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당시 저는 놀라움 외에도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시스템을 나한테 맡기는지 두려웠습니다. 마음속의 불안함과 제 능력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인해, 시스템 유지보수와 요구사항에 직면해 내리는 결정의 대부분에서 저는 보수적인 전략을 취했습니다. 도움을 주러 온 수련생들에게도 감히 너무 복잡한 일을 맡기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스템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지만 시스템 발전 면에서는 큰 돌파가 없었고, 동시에 제가 대량의 요구사항을 처리해야 하는 현 상황도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법제자는 모두 신(神)의 길을 걷고 있는 수련자이며, 각자의 등 뒤에는 사부님의 법신(法身)께서 법을 호위하고 계시고, 모두 법이 가져다준 무상(無上)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의 인도하에, 시스템에 부족한 기능과 마케팅 부서 업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저와 다른 기술 수련생들은 시스템을 설계했고, 템플릿 제작과 발송 홍보 부분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오늘

날의 시스템은 마케팅 부서의 일상 운영에 큰 편리함을 가져다주었고, 그들의 일상 업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사부님의 세심한 안배에 감사드립니다. 이 업무 하나만으로도 제 수련 중의 온갖 집착이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집착을 인식하고 변화를 위해 노력한 후, 저는 애초부터 혼자가 아니었으며 늘 수련생들의 지지와 도움이 있어 함께 시스템 운영을 유지해 왔다는 것과, 사실 줄곧 제 집착이 제 눈을 가려 시스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시스템은 더욱 안정적이고, 팀원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시스템의 운영을 공동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거나 다른 요청을 받을 때도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정진실수(精進實修)하며 절대 나태해지지 말자

2022년 12월 21일 저녁, 저는 어머니(수련생)가 중병에 걸려 언제든지 생명이 위협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해외에 있는 제가 이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발정념이었고, 그날 밤부터 저는 대량으로 발정념을 하여 어머니에 대한 교란을 제거하는 동시에 사부님의 가지(加持)를 간곡히 청했습니다.

수련에서의 나태함은 어머니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정념이 부족해 구세력이 틈을 타게 만들었습니다. 아들로써 저는 어머니에게 그저 폭 쉬시라고만 했을 뿐, 법에서 일깨워 드려 정념을 유지하시도록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 자신 역시 수련에서 나태해져, 하루 2시간 연공을 채우는 날이 드물고 매일 업무가 바쁘다는 핑계로 수련을 미루었기에, 어머니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저 자신도 정념

을 유지하지 못해 어머니께 법으로 이 표면적인 병업 고비를 올바르게 보시도록 일깨워 드리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머니는 매일 많은 시간을 들여 전심으로 법공부와 연공을 하시고, 기회가 될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찌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외우도록 가르치십니다. 이번 시련은 저를 더욱 정진하게 만들었습니다. 나태한 제자를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신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수련의 길은 필연적으로 속인 중의 온갖 유혹을 버려야 하고, 어려움에 직면하는 결심과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길에서 정진실수하고 진념(眞念)으로 수련의 길에 있는 모든 일을 대하는 것은 진실로 우리 각 수련인이 반드시 직면해야 하고, 또한 반드시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층차가 제한되어 있어 법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바로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수련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허스(舍十)

역사적 전란의 이면: 신앙의 빛 (상)

글/ 소가(蕭歌)

[명혜망] 최근 중국에는 고대에 전란이 끊이지 않아 태평성대는 손에 꼽을 정도였고, 대부분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민중이 끔찍한 고통을 겪었다는 목소리가 있다. 공식 승인을 받은 베스트셀러, 드라마, 숏폼 영상 등의 형태로 전파되며 이런 주장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잦은 전쟁 속의 유랑, 격렬한 권력 투쟁, 빈번한 정권 교체를 보면 고대의 대부분 시기에 서민들은 좋은 날을 며칠 보내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리기 쉽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5, 60년대에 중국공산당(중공)은 전통문화를 근절하고 문화대혁명 기간에 ‘파사구(破四舊, 4가지 낡은 것을 타파함)’를 발동해 봉건 미신을 타도했으며, 고서를 불태우고 고건축물을 철거해 물질적 측면에서 전면적인 파괴를 가했고, 사람들은 공포 속에서 잠시 잊는 것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 세대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 있었고, 청나라 말기나 민국(民國) 시대에 태어난 그들의 중국 전통문화에 대한 기억과 인식은 지워버릴 수 없었다.

청나라 말기와 민국 시대에 태어난 이 세대가 점차 모두 세상을 떠나자, 중국 전통문화의 혈맥에는 ‘진공’ 상태가 나타났다. 반면 발언권을 장악한 중공은 문화대혁명의 ‘파사구’와는 다른 방식으로 중국 고대 문화를 다시 선별, 수정, 해석하기 시작했다. 당이 정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역사’를 문학화, 이야기화, 예술화 등의 수법으로 출판, 영화 및 TV, 뉴스 매체 등의 분야에서 고대를 궁중 암투,

전쟁, 충돌 등의 모습으로 묘사했고, ‘계급 투쟁’과 ‘무신론’을 핵심 사상으로 삼아 역사와 조상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새로운 세대에게 주입했다.

이러한 일상적이고 광범위하며 예술화된 표현 방식은 점차 하나의 전반적인 인상을 형성했다. 폭력 투쟁은 계급 불평등이 초래한 필연적인 결과이므로 왕조 교체가 있었던 것이며, 이는 ‘계급 투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한다. 종교는 통치자가 인민을 환각에 빠뜨리고 고난을 감수하게 만드는 도구이므로 ‘무신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한다. 전쟁으로 인한 할거(割據)와 군벌의 혼전은 불안정을 초래하고 고통받는 것은 서민들이므로, ‘안정이 모든 것을 압도한다’는 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중국 서민들은 늘 혼란스러우면 안 된다며 6·4 진압(천안문 사건)과 파룬궁 탄압은 옳았고, 만약 자신이 지도자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말하게 된 것이다. 중공은 정교하고 체계적인 세뇌술로 세상 사람들의 관념과 사고를 형성하고 있다. 즉 고대에는 전란이 빈번하고 인민이 극도로 고통스러웠으니, 강력한 ‘무산계급’ 정권을 유지해야만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누구나 휴대폰과 떼려야 뗄 수 없고 숏폼 영상이 범람하는 가운데 중공이 ‘허가제’라는 통제 방식을 취하는 상황에서, 만약 일부 문제를 명확히 해명하지 않는다면 고대 역사와 문화를 먹칠하는 ‘독의 흐름’이 사회 전체를 위협한 지경에 빠뜨릴 것이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 다음 몇 가지 문제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 고대의 전쟁은 무엇을 가져왔는가?
- 중공이 ‘허가’한 각본은 어떻게 쓰였는가?
- 역사의 진상은 무엇인가?

여러 다른 차원의 비교를 할 때, 비난이 가장 많은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 서기 220년~589년, 약 370년) 시기를 예로 들어 사망자가 많고 민간이 유랑하며 고통받았다고 지탄받는 것 외에 북방과 남방에서 각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잔혹한 석호에게도 불성의 일면이 있었다

위진남북조 시기에는 전쟁이 일상이었고 죽음과 인구 이동이 수반돼 확실히 역사상 가장 격동적인 시대 중 하나였다. 하지만 역사적 전란의 이면에서는 전쟁 이외의 많은 일도 일어나고 있었으니,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함께 보아야 비로소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살인 마왕으로 묘사되는 북방 후조(後趙)의 석호(石虎)는 폭력적인 살육과 가혹한 착취를 일삼았는데, 중국에서 출판된 도서들은 그의 잔혹함을 상세하고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는 공산당의 ‘총구에서 정권이 나온다’는 이론에 부합하기에 석호를 끔찍하게 묘사할수록 좋고, 그래야 공산당의 ‘토호를 타도하고 토지를 분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자비로운지 부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석호의 이면은 어떤 모습일까?

《태평광기(太平廣記)》의 기록에 따르면, 석호는 불교를 지원하고 승려 불도징(佛圖澄)을 존경하며 받들었다. 그는 문서를 반포해 “스님은 곧 국가의 큰 보물이시지만, 영예로운 벼슬을 덧붙이려 해도 원치 않으시고 높은 녹봉을 받으려 하지 않으신다. 영예로운 벼슬과 높은 녹봉을 드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인덕을 표창할 수 있겠는가? 이제부터 마땅히 비단옷을 입으시게 하고 보배로운 수레를 타시게 하라. 조회하는 날 스님께서 전각에 오르실 때면 상시(常侍) 이하 관원들은 모두 가마 드는 것을 돕고, 태자와 여러 공(公)은 수레를 부축해 조정에 오르도록 하라”고 했다. 불도징의 만류와

타이름 덕분에 석호의 살육은 크게 누그러졌다.

어떤 대신이 석호에게 상소를 올려 부처는 서역에서 온 외국의 신(오랑캐의 신)이므로 화하(華夏)의 천자가 마땅히 믿고 받들어서는 안 된다고 한족의 출가를 금지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석호는 “부처님은 오랑캐의 신이니 바로 받들어야 마땅하다”라고 여겼다. 석호는 영토 내의 모든 백성이 종족을 불문하고 자유롭게 출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한족의 출가를 허용한 공식 명령이었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베스트셀러에 등장하지 않는다. 중공이 1950년에 철저히 장기적으로 불교를 탄압해 승려들을 환속시키고 비구니들을 시집보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 이르러 불교가 비록 회복되긴 했지만 ‘무신론’을 주장하는 공산당 영도하의 애국 종교에 속하며, 한 가지 변하지 않은 원칙이 있으니 중공 당원은 어떠한 종교 신앙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위진남북조 시기에는 아무리 전쟁이 빈번했어도 정권을 잡은 천자들은 모두 자신을 화하의 일원이라고 여겼다. 어떻게 화하를 다시 하나로 통일할 것인가? 어떻게 유(儒), 불(佛), 도(道)가 중생에게 혜택을 베풀게 할 것인가? 사람마다 각기 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북방 전진(前秦)과 후진(後秦)의 군왕들은 구마라습(鳩摩羅什)을 장안(長安)으로 맞이해 대규모 경전 번역 사업을 주도하게 함으로써 중국 대승 불교의 이론적 기초를 다졌다. 머나먼 서북쪽 밖의 서량(西涼) 왕국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둔황(敦煌) 막고굴(莫高窟)을 뚫고 지어, 불교가 중원으로 전파되는 중요한 중간 기착지가 됐다.

위진남북조의 수많은 소국은 모두 유성처럼 짧게 지나갔고, 나라가 얼마나 강하든 약하든 전쟁과 살육을 위해 무력을 동원했지만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 바로 화하의 통일이었다. 아울러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영원히 동란이 재발하지 않게 할 정신적 신앙을 찾기를 바랐으며, 유·불·도 3교가 서로 어우러져 빛을 발했고 모두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수련해 선을 향하게 하고 도덕을 승화시키며 반본귀진(返本歸眞, 선천적인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것)하게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었다.

수련의 관점에서 볼 때 전쟁은 천상(天象)의 변화이고 왕조의 교체는 천상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모든 소국에는 완수해야 할 ‘천명’이 있었다. 역사적 사명을 완수한 후 그들은 신속히 퇴장했다. 전쟁의 소용돌이는 인구의 대이동과 문화의 대융합을 가져왔으며, 그 이면의 진정한 의미는 중화 신전문화(神傳文化)를 더 광범위하게 전파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전쟁은 사람들에게 거대한 고통을 겪게 했고, 그 고통 속에서 업력을 소멸시켰으며, 고통과 격렬한 갈등 속에서, 그리고 생사의 이별 속에서 영성이 높은 많은 이가 생명에 대해 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다시 말해 중국 역사상의 전란은 형식적인 대격동 외에도 더 깊은 차원의 효과와 의미가 있었다.

운강석굴 불상은 황제의 용모인가?

위진남북조는 불교가 중국에 보급될 수 있었던 핵심 시기였다. 한나라 말기 불교가 중국에 막 전파되었을 때는 소수의 사람만이 받아들였다. 남북조 시대, 특히 북위(北魏) 시기에 이르러 불교는 널리 전파됐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공식적인 표현이나 많은 관련 도서에서는 북

위가 불교를 전파한 것은 황권을 공고히 하기 위함이었고, 북위가 조성한 운강석굴(雲岡石窟)의 불상은 황제의 용모를 본떠 만든 것이며, ‘종교는 봉건 계급이 인민을 마취시키는 아편’이라는 식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 더 구체적인 주장으로는, 황제가 자신의 용모에 따라 불상을 만들라는 조서를 내렸으므로, 불상을 건립한 황제는 이를 빌려 자신을 신격화하고 불상을 통해 서민들의 인정을 받아 정권을 공고히 하려 했다고 여긴다.

사실 전문가들은 이런 주장이 중공의 정밀한 검열을 거친 후 역사적 기록에 근거해 건강부회하고 문맥을 단절시켜 가공한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는 출판물에 보편적으로 등장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오늘날 운강석굴 현장 해설에서 가이드가 관광객에게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다. 가이드들은 ‘담요(曇曜) 5굴’의 다섯 불상이 각각 북위의 다섯 황제를 대표하고, 다른 석굴들은 다른 황제들에 해당하며, 어느 것이 풍(馮) 태후이고 어느 것이 효문제(孝文帝)인지 아주 생생하게 설명한다. 공산당의 ‘무신론’은 이렇게 반복되면서 수천만 관광객의 뇌리에 시각적이고 생동감 있게 각인되고 있다.

진상은 무엇일까? 사실 24사(史) 중 《위서·석노지(魏書·釋老志)》만 펼쳐봐도 거짓말은 금세 들통난다.

총 1만 2천여 자에 달하는 《위서·석노지》는 불교가 중국에 전파된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과 변화를 상세하고 세밀하게 서술하고 있다. 석가모니가 태어날 즈음 중국에서는 하늘에 새로운 항성이 탄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가모니 이전에도 6명의 고불(古佛)이 있었고, 그는 이 6명의 고불 뒤를 이어 여래(如來)의 과위(果位)를 증득했다. “석가모니가 비록 열반

에 들었으나 인도에 그림자와 손톱, 치아를 남겼고 지금까지도 남아있다. 중원의 왕래하는 이들이 모두 이를 보았다고 칭했다.” 석가 모니는 비록 열반했지만 손가락뼈 사리와 치아를 남겼고 왕래하는 중원 인사들이 친히 그것을 보았다. 위(魏) 명제(明帝)가 일찍이 불법을 훼손하려 했을 때, 한 승려가 불사리를 궁전 앞 물에 던지자 오색 빛이 피어올랐고, 명제는 경탄을 금치 못하며 훗날 사찰을 지어 공양했다.

한번은 길을 가던 황궁의 어마(御馬)가 갑자기 한 승려의 옷을 물고 놓아주지 않았는데 이 승려가 바로 담요였다. 당시 사람들은 ‘말이 선인을 알아본다’라고 여겼다. 문성제(文成帝)는 담요를 스승의 예로 받들었다. 담요가 건의했다. “산의 석벽을 뚫어 다섯 곳의 석굴을 열고 각각 불상 하나를 새겨 넣으십시오. 높은 것은 70척, 다음은 60척으로 하고 조각과 장식을 기이하고 훌륭하게 하여 당대 으뜸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운강석굴의 유래다.

북위 화평(和平) 원년부터 화평 6년(460~465년)까지 승려 담요는 북위 문성제의 명을 받들어 ‘담요 5굴’의 영건을 주도했다. 어떤 전문가는 ‘담요 5굴’ 조상(造像)에 대한 분석을 거쳐, 불상의 용모가 신장(新疆)의 옛 쿠처(龜茲) 석굴 및 간다라 예술과 더 많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불상의 얼굴은 깊은 눈과 오뚝한 코, 넓은 어깨와 두툼한 입술 등 전형적인 서역 양식으로 북위 황실의 부족 특성과 단순한 대응 관계가 아니다. 《위서·석노지》에도 담요가 황제의 용모를 본떠 불상을 조성했다는 기록은 없다. 하지만 중국 출판물에서는 황제가 내린 조서를 ‘담요 5굴’과 직접 연결 지어 억지로 꿰맞추고 문맥을 단절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자신의 형상을 본떠 석불을 건조하라고 명령한 황제가

있었을까? 있었다. 그 역시 북위 문성제였으나 그때는 서기 452년이었다. 그는 또 사람을 시켜 그 불상의 얼굴과 발에 각각 작은 검은 돌을 박아 넣게 했다. 문성제는 또 도성의 5급(級) 대사(大寺)에 북위의 다섯 황제를 대표하는 5존의 불상을 조성하라고 명령했으나, 그것도 운강의 ‘담요 5굴’ 불상은 아니었다.

서기 386년 법과(法果)라는 승려가 말하길, 북위 태조(太祖)가 우리를 인정하시니 그분이 바로 현세의 여래이시며, 내가 그분을 뵈는 것은 천자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 절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람마다 차원과 경지가 다르므로 언행의 표현도 다르지만, 개인이 한 말은 당시 개인의 인식일 뿐 불법을 대표할 수 없으며, 후세 사람들이 부처를 배우고 불법을 인식하는 근거로 삼을 수도 없다.

《위서·석노지》에는 불교에 대한 북위 효문제의 견해가 기록되어 있다. 효문제는 군주가 신령을 공경하고 받들어야 비로소 국가를 안정시키고 서민을 평안하게 할 수 있으며 예로부터 그러했다고 여겼다. 또한 석가여래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중생의 선량한 본성을 일깨워 정각(正覺)으로 수련해 낼 수 있게 하므로 불법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원문: “대체로 제왕 된 자는 반드시 신명(神明)을 받들고 인도를 창달해야 한다. 서민에게 은혜를 베풀고 못 생명에게 이익을 준 자는 비록 옛날 사람일지라도 그 훌륭한 기풍을 기렸다. 이런 까닭에 《춘추》에서 신명을 숭상하는 예(禮)를 찬양했고, 제사 의전에는 공로를 베푼 족속을 기록했다. 하물며 석가여래는大千세계(大千世界)를 구제한 공로가 있고 진세(塵世)에 은혜를 베풀었으니, 생사를 평등하게 보는 이는 그 달관에 감탄하고 글과 뜻을 살피는 이는 그 오묘하고 밝음을 귀하게 여긴다. 왕정의 금률(禁律)을 돕고 어질고

지혜로운 착한 본성을 더하며, 못 샅된 것을 배척하고 정각(正覺)을 열어 연설하신다. 그러므로 이전 시대 이래로 숭상하지 않음이 없었으며 또한 우리 국가에서도 항상 존경하여 받들어 왔다.”]

만약 독자들이 계기가 돼 《위서·석노지》를 온전히 읽을 수 있다면 불교에 대해 명확하고 완전한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불가(佛家)에 8만 4천 법문이 있다는 것은 많은 이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모든 법문에는 저마다의 수련 방법이 있는데 그 목적은 수행을 통해 세속의 질곡과 국한을 벗어나 반본귀진하여 천국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계속)



▲ 대만 신베이시에서 10월 3일, 단수이(淡水) 예술 카니발 퍼레이드가 열렸다. 파룬궁수련자들로 구성된 관악단인 ‘천국악단’과 고전 의상을 입은 선녀 행렬이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천국악단은 행진 중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파룬성왕(法輪聖王)’, ‘불은성악(佛恩聖樂)’ 등의 곡을 연주했다. 대학생 루 씨는 천국악단에 대해 “인원이 매우 많고 기세가 웅장했으며 공연에 힘과 활력이 넘쳤다, 무척 감동적이었고 동경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진선인의 신념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데 지지를 표했다.

■ **박해당해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 중에 이름이 확인된 인원수: 5385명**

■ **2004년 12월 3일부터 탈당(단/대)한 인원수: 4억 6744만 6273명**

■ **인터넷 봉쇄를 돌파해 明慧網을 보려면**

프리게이트(自由門) PC판: <https://j.mp/fgp88>

프리게이트 안드로이드VPN: <https://j.mp/fgv88>

울트라서프 안드로이드: <https://s3.amazonaws.com/693/um.apk>

울트라서프(無界) PC판: <https://s3.amazonaws.com/693/u.exe>

明慧網은 1999년 6월에 설립했고, 가장 먼저 파룬궁 진상 정보를 수집·정리·발표하며, 중국의 박해 환경에서 대법제자의 수련환경을 지켜주고 보완해준다.